

성북문화

2019 제7호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

성북문화 2019 제7호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4가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홈페이지 : www.isbcc.or.kr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9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자는 2019년 성북문화원에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호 : 현암(玄庵) 정상옥 (前 성북문화원 이사, 前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뒷표지 글씨 : 나현(蘿峴) 이은설(서예가, 성북문화원 한문서에 감사)

휘광일신(輝光日新) 날마다 새로이 밝게 빛난다

표지 사진 :

「융복합 창작 무용극 :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1」의 한 장면이다.

「융복합 창작 무용극 :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1」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한 세 명의 여성, 이은숙(곽지숙 배우), 정정화(곽영현 배우), 조화벽(황재희 배우)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무용, 음악, 영상, 전통의상을 하나로 융합시켜 만든 새로운 시도의 창작극이다.

※ 사진제공: 모다트(Modart)

.....

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2
축사(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4
특집 1 성북구의 여성독립운동가	
성북구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은숙 · 정정화 · 조화벽	6
융복합 창작 무용극 :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1	9
문화예술인 초대석	
성북구의 문인 신동엽의 아들 신좌섭 교수를 만나다	18
“우리는 재미있게 놀기 위해 태어났다” - 박정의 서울연극협회 성북구 지회장을 만나다	28
성북공간 - 성북의 새로운 문화공간	
문화공간 이육사를 소개합니다	38
특집2 재조명 받아야 할 성북의 독립지사	
삼균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한 사상가, 조소앙	43
성북동 출신 항공독립운동가 최용덕 장군	47
2019년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조선 후기 성북동 문화지도의 중심, 황윤명	53
8년간의 실패, 번암 채제공의 명덕동 별업	58
2019년 성북문화원 소식	
성북문화원 일반회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 : 충남 논산	65
성북문화원 일반회원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 경기도 양주	69
2019 외부 경연대회 수상 내역	73
2019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75
2019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82
2019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04
2019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06

『성북문화』 7호를 내며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려, 국가의 존재, 자유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북문화』 7호는 이 뜻깊은 해에 성북문화원이 이뤄온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의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월과 11월 융복합 창작 무용극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1, 2’를 통해 이은숙, 정정화, 조화벽 등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성북구와 관련된 독립지사들의 후손들을 찾아, 독립지사는 물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연속 강연회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를 마련하여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운동사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광복회 성북구지회의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용운 선사 추모다례제와 이육사 탄생 기념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성북구의 뿌리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먼저 장위동과 석관동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발굴·정리하여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장위·석관동은 오래된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장위동과 석관동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조금은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을기록아카이브사업을 통해 성북구의 역사·문화 기록을 수집·정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북구의 문학작품을 지도를 통해 재





미있게 볼 수 있는 ‘성북마을발전x문학’과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망라하고자 만든 ‘성북구 마을기록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주민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9월 밤, 3일 동안 성북동 일대에서 벌어진 ‘성북동문화재야행’은 성북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대학생, 주민, 학교, 상인이 하나 되는 고려대캠퍼스타운축제 ‘끌어안암’과 한성대캠퍼스타운축제 ‘삼선유람’도 문화원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 ‘성북의 삶을 담다, 성북별곡(城北別曲)’에는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성북문화원 수강생까지 참여하여 명실공히 성북구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성북문화원의 소명은 막중합니다.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한국전쟁 70주년, 4월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북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지켜나가는 일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성북문화원이 2019년 이루어낸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성북문화원을 올해와 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정릉동 전경(1990)



지역문화의 기록과 보존에 힘써 온 성북문화원의 『성북문화』 7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한 해에도 성북구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성북문화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문화』 7호를 통해 성북구민의 밝고 열정적인 모습과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성북의 면면을 여러 사진과 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2019년을 씬 없이 달려온 성북문화원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되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성북문화원은 문화현장의 곳곳에서 성북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어 2019년에도 다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성북의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문화행사, 학술제로 성북의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성북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강연으로 구민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또한 마을기록 아카이브를 통해 성북이 걸어온 길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집대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의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그래왔듯이 문화적 소양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성북문화원이 성북구 문화발전의 한 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구민들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성북문화원이 성북구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한 해 경자년(庚子年)의 상징처럼 모든 가정에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제8대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입니다.

긴 겨울밤을 지새울 때면 새봄을 기다리는 설렘과 희망을 기억하고자 애씁니다.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건넨 새해 인사를 미리 적어보며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친 표정에 웃음을 주고 일상에 생기를 더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무엇, 성북문화원은 그것을 만들고 전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2013년 창간한 후로 매해 연말마다 빠짐없이 찬란한 봄의 기억으로 지루한 기다림을 달래주는 읽을거리가 있습니다. 『성북문화』 제7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기다리는 다른 모든 독자처럼 저 또한 지난 계절들을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겨보는 기쁨을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유난히 문화행사가 다채롭고 풍부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 엮인 이야기들도 역동적이고 흥미로우리라 믿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한 권씩 책장에 쌓여가는 성북구의 영감 넘치는 기억들을 보며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구민들과 한마음으로 성북문화원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성북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 성북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문화원 옆에서 성북구의회가 함께 걸어가며 응원하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 가운데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

특집1-성북구의 여성독립운동가

성북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은숙 · 정정화 · 조화벽

글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이은숙, 정정화, 조화벽은 모두 말년을 성북구에서 보냈다.
 이은숙과 조화벽은 정릉, 정정화는 돈암동에 살았다.
 역사는 기억의 투쟁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힌다.
 아직 그들이 살았던 집에는 작은 표석 하나 없다.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자는 다짐이다.

독립운동가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차별적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여성’을 붙인 것은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독립운동 포상자는 15,511명, 이중 여성은 432명으로 3%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실제로 남성들이 더 많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되물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우선 여성의 경우는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판결문, 공판자료, 조서 등)가 적다. 당시 정해진 성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도 있다. 여성들은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 남편이나 아들 등 남성들의 독립운동을 자금을 모금하거나 연락책의 형태로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굳이 ‘여성’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성북구에도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세 분이 있다. 이은숙, 정정화, 조화벽이다. 이은숙(1889년~1979년 12월 12일)은 그 자신의 이름보다 우당 이회영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1908년 19살이었던 이은숙은 당시 40이 넘는 이회영과 결혼을 한다. 집안의 뜻이었다. 그래도 명문가로 시집가는 것이어서 조금은 편한 결혼생활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 2년만인 1910년 남편은 집안 전체를 설득해 만주로 떠난다. 고생은 그곳에서 시작됐다. 마적에게 총을 맞기도 하고, 아들이 다치기도 하고, 후에는 자식을 잃기도 한다. 남편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에 돌아오는 날이 적었다. 살림은 늘 어려웠다. 결국 막내아들과 둘이 서울로 돌아와 돈을 벌었다. 일부는 남편에게 전달되었다. 이회영은 그것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나중에는 남편이 감옥에서 순국했고, 아들은 밀정을 처단하다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아들의 뒷바라지도 해야 했다. 기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생이었다.

정정화(1900년 8월 3일 ~ 1991년 11월 2일) 역시 어린 나이에 김의한과 결혼했다. 10살. 당시로도 매우 어렸다. 역시 집안끼리의 약속이었고, 명문가로 가는 시집이었다. 그의 시아버지는 동농 김가진이었다. 대한제국의 법무대신을 지냈고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하였던 그야말로 명망가였다. 엄한 시어머니를 빼면 결혼 생활은 무난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가족들에게는 말도 없이 상해로 망명한 것이다. 잠시 당황했지만 정정화는 ‘시아버지를 모신다’는 일념으로 홀로 상해로 망명한다. 그녀의 독립운동은 그곳에서 시작됐다. 임시정부 요원들의 살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나 조선을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다. 한국독립당 광복군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한국혁명여성동지회 조직, 대한애국부인회 재건대회에서 훈련부장에 선출되는 등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해방 후에는 건강문제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불행은 찾아왔다. 남편 김의한이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된 것이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였지만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도 불행을 겪어야 했다.

조화벽(1895년 10월 17일~1975년 9월 3일)은 유우석의 아내, 혹은 유관순의 올케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3.1운동 당시 개성 호수돈(好壽敦)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이던 그녀는 3.1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휴교령이 떨어지자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인 양양으로 향했다. 이 독립선언서가 양양감리교회의 청년 지도자인 김필선과 김주호 등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양양은 물론 강원도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주 영명 여학교 교사로 부임한 후에는 어린 유관순의 동생들을 돌봤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유관순의 오빠였던 유우석과 결혼한다. 이후 배화여고, 호수돈여학교 루씨여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2년에는 고향인 양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정명학원을 설립한다. 정명학원은 1944년까지 600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셋 모두 보통의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 업적이 축소되어 있다. 이은숙의 공적이 인정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그녀가 사망한 해는 1979년이니 사망하고 40년이나 지난 후였다. 남편인 이회영이 독립포상을 받은 것은 1962년이니 그때부터 따지면 5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정정화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아들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윤보선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했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정화는 애족장을 받았고, 그의 남편 김의한은 독립장을 받았다. 아들 김자동 회장은 어머니에게 “애족장이 뭐냐? 받지 말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조화벽은 더 늦게 알려졌다. 며느리인 김정애 전 3.1여성동지회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도 늦게야 시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왜 지금까지 말씀도 안 하셨냐?”고 묻자 “너희 집이 어떤 집안이나.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세운동 하시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너희 시고모님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시고, 너희 시아버님은 평생을 독립운동 하셨지 않느냐. 내가 한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한 일을 얘기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은숙, 정정화, 조화벽은 모두 말년을 성북구에서 보냈다. 이은숙과 조화벽은 정릉, 정정화는 돈암동에 살았다. 역사는 기억의 투쟁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힌다. 아직 그들이 살았던 집에는 작은 표석 하나 없다.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자는 다짐이다.

특집1 - 성북구의 여성독립운동가

융복합 창작 무용극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1

글_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원)

여성독립운동가열전1의 한 장면
이은숙 여사(곽지숙 배우)가 고된 상황 속에
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그리고 ‘여성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힘쓰는, 혹은 힘썼던 사람을 가리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성독립운동가’라는 단어는 낯설다. 왜일까? 이유를 뽀족이 집어 말하기 어렵다. 굳이 성별을 붙여서 적었기 때문에? ‘남성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낯선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일까? 아니면 ‘여성’과 ‘독립운동가’, 두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감 때문일까? 독립운동을 다룬 각종 매체에서 본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일까? 이런 의문을 가슴 속에 가진 채 어느 추운 겨울날 현장을 찾았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양예술극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융복합 창작 무용극 :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제목부터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였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독립운동가들에게 바치는 춤 (박성울 무용수)

해방 이후 조국으로 돌아온 이은숙 여사(곽지숙 배우)는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추위가 매서운 겨울이었음에도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무용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했을 터이다. 이중에는 나처럼 ‘여성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주는 낯설음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리를 잡았다. 조금 위쪽의 가운데 자리. 무대와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전체를 조망하기는 무척 좋은 자리였다.

이윽고 스스로 총예술감독이라 소개한 한 분이 무대 가운데에 자리했다. 공연 시작인가? 아니었다. ‘공연사용설명서’란다. 이번 공연은 무척 실험적이고 하나의 도전과도 같아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이렇게 사전에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 정보 속에서 필자는 ‘낯설음’의 정체를 어렵풋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 독립 유공자가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만 오천명 정도 됩니다. 그중 여성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백명 정도입니다. 3%가 채 안 됩니다. 과연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역사가 쓰여지는 과정에서 잊혀지고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우리 공연은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이기연 총예술감독)



그랬다. 보통 독립운동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안중근, 김구, 윤봉길 등 굵직한 이들뿐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라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유관순, … 그리고 또…? 이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낯설음의 이유였을 테다. 아마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역사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오늘 이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이라면 정정화, 이은숙, 조화벽까지 술술 될 수 있을 테지.

한 시간 남짓 공연이 진행됐다. 때로는 대사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무용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을 그려냈다. 말 그대로 ‘융복합’이었다. 음악과 몸짓이, 무용과 연극이, 예술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졌다. 이야기는 장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고통과 괴로움, 고난과 역경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삶까지 담았다. 정정화, 이은숙, 조화벽, 이 셋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개개인의 삶도 담았다.

(정정화, 이은숙, 조화벽 이 세 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 글을 참조하면 된다.)

공연이 끝나자 많은 관객들이 옆 사람과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극장을 나섰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공연이 아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는 공연이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공연에



정정화 지사가 나온 사진을 배경으로 조화벽 지사(황재희 배우)가 조국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은숙 여사(곽지숙 배우)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서 느낀 감상을 이야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일 것이다. 또 누군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옆 사람의 생각을 물어볼 것이다. 관람 이후에 더 생각이 많아지는 공연. 더 궁금해지는 공연.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공연. 이른바 ‘명작’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작품을 관람한 후에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필자 또한 공연을 보고난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성독립운동가’라는 단어에서 낯설음을 먼저 느꼈던 것에 대해 반성했다. 어찌보면 그때 그 시절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남성독립운동가들보다 더 많이 힘들었고,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때로는 일제에 대항하고, 전근대적 관습에 저항했으며, 시대가 규정한 여성상이란 틀을 깨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낯설음’이라니. 부끄러워졌다. ‘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주는 것보다 ‘여성독립운동가’에서 더 큰 묵직함을 느껴야 했는데 말이다.

아니, 그보다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남성만을 떠올리게 되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 독립운동은 모두가 함께 했다. 한 집안에서 한 명만이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명의 독립운동가가 있다면 그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누나, 똥둥…。 때로는 앞에 나서기도, 때로는 뒤에서 돕기도 하며 각자 나름의 독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남성만을 떠올리게 되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 독립운동은 모두가 함께 했다.
때로는 앞에 나서기도, 때로는 뒤에서 돕기도 하며 각자 나름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성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뿐이었다.

립운동을 전개했다. 남성들보다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여성들도 있었다. 성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뿐이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융복합 창작 무용극을 보았으니 필자도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융복합’을 시도해 보았다. 무려 포털 검색엔진에서 ‘검색해보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최근 한 달 간의 검색량을 살펴보았다. ‘여성독립운동가’는 약 2천회, ‘남성독립운동가’는 약 30회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포털사이트 구글에서는 검색결과를 살펴보았다.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1’은 영상과 무용, 음악, 영상, 전통의상이
한데 어우러져 상징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배우, 무용수들의 인사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1의 이기연 예술감독(질경이 우리옷 대표)





단어가 담긴 문서는 약 25만개, ‘남성독립운동가’라는 단어가 담긴 문서는 약 2만개였다. 왜 ‘남성독립운동가’는 검색량도, 검색결과도 이렇게 적을까? 그만큼 ‘여성독립운동가’가 더 주목받기 때문일까? 이 수치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은 ‘여성독립운동가’는 ‘여성독립운동가’여야만 하고, ‘남성독립운동가’는 그냥 ‘독립운동가’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독립운동가’와 ‘남성독립운동가’가 함께 ‘독립운동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성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라는 단어에는 이미 남성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강하게 박혀있는 의식일 테지. 이번 공연은 이를 바꾸기 위한 공연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일까? 총예술감독을 맡은 이기연 (주) 질경이우리웃 대표는 말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3명이지만 다음에는 10명, 20명, … 이렇게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잊혀진 역사 속에서 찾아내어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업을 10년 넘게 계속해 나간다면, 무언가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요?”

※ 지난 2019년 11월, 「융복합 창작 무용극 :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2」가 무대에 올랐다. 여기서는 10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더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더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알리기 위해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3」을 준비하는 중이다.

성북구 문인 신동엽의 아들 신좌섭 교수를 만나다

진행_김경민(성북구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정리_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신좌섭은 신동엽 시인과 인병선 쏘팔생활사박물관 설립자의 아들이다. 1959년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7년에 첫 시집 『네 이름을 지운다』를 출판했다.

성북구립미술관의 개관 10주년 기념전 「존재와 공간」을 준비하며, 지난 8월에 김경민 학예연구사의 진행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성북구에서 보낸 가족들의 삶에 대한 증언과 ‘신동엽 문학의 산실’로서 성북구가 지닌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이날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지낸 동선동5가 45번지 집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집은 1962년에 아버님이 처음 매입을 하시고 돌아가시던 1969년 4월 7일까지 사시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조그만 자기 집을 마련해서 살기 시작해서 7년 남짓 살았고요. 그 집에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누이하고 저하고 제 남동생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으레 그랬듯이 문간방은 세를 켰어요. 20평 남짓 되는 개량 한옥이었는데 북적댔죠.

집 구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대문 밖에서 보게 되면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창문이 하나씩 있는데, 왼쪽은 재래식 화장실의 창문이고 오른쪽은 문간방에 딸린 창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뒤탈마루가 딸린 문간방이 있고, 본채하고 문간방을 구분하는 중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문의 문턱이 제법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 넘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아이들이 지내는 건넌방과 마루가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모님 계시던 안방이 있고요. 안방 바로 옆에, 대문에서 보면 정면에 해당하는 곳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엌 바로 앞에 수도와 하수구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으로 장독대와 조그만 화단이 있었어요. 조그만 화단에는 겨울에 김장을 담가 김장독을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시절에 지은 집들은 거의 다 똑같은 구조였을 거예요.

아버님 전집이 75년에 나왔다가 곧바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판매금지가 되고 80년 무렵에 중



인터뷰 중인 신좌섭 교수



성북구 동선동5가 45번지 집 앞에서 (위에서부터) 외할머니 노미석, 누나 신정섭, 그리고 신좌섭 교수. 신동엽 시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한옥에서 살았다. (사진제공: 신동엽문학관)

보판이 나왔는데, 그 뒤에 80년대 중반경부터 아버님을 재조명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는데 그때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그 집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대본 중 하나가 동선동5가 45번지를 방문해서 마루에서 어머니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집을 어떻게 보존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부여에 문학관과 아버님 어릴 때 사시던 집을 보존하는 문제 등에 신경을 많이 쓸 때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신동엽의 서울시대’라고 해서 문학 기행으로 가보니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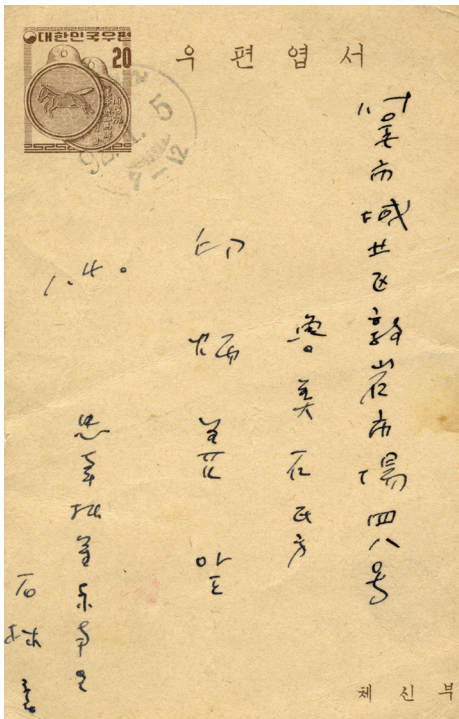
동선동 집 주변 동네 풍경은 어땠나요?

집 앞 골목이 어렸을 때 저희 놀이터였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 집 바로 맞은편에는 그 시절에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큰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 거기 무슨 극단¹이 들

1 극단초인, 2003년 한성대입구에서 시작하여 2006년에 동선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당히 부잣집 한 집이 살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있던 쪽 같은 열에는 다 20평 정도 되는 비슷한 개랑 한옥들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그 골목에서 맨날 공놀이하고 노는 게 일이었죠. 그리고 옆집 뒷집 전부 애들이 있으니깐 함께 모여서 놀고, 우리가 공놀이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고구마 삶아서 내오시고, 그 모습이 그 길에는 아마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치가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북쪽으로 언덕바지가 쪽 있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그냥 허허벌판 공터여서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놀고 산동네 애들하고 우리 동선동 애들하고 서로 팀 짜서 축구시합도 하고, 그리고 북서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아리랑고개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가 엄청나게 건물도 많고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 아리랑고개 쪽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종점이 그쪽에 있었고요. 집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해서 정릉으로 넘어가면 북한산 정릉 입구까지 걸어서 4, 50분 정도 됐어요. 지금도 그렇죠. 아버님이 워낙 등산을 좋아하셨으니까 아버님 따라서 그 길로 북한산을 종종 갔던 기억이 있어요. 또 약간 동쪽으로는 그 유명한 미아리고개가 있죠. 할머니가 그 맞은편 성신여대 인근에 사셔서 할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면 미아리고개 밑에 있는 그 굴다리를 늘 지나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으스스한 분위기고 좀 그랬죠. 돈암동 그 집 자체에 대해서는 다정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동엽이 신춘문에 입선 후 인병선에게 보낸 편지 봉투. 인병선의 어머니 노미석의 이름과 그가 운영한 포목점의 주소로 추정되는 '돈암시장 48호'가 적혀있다. (사진제공 : 신동엽문학관)

동선동에 집을 마련하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동선동, 돈암동, 동소문동이 다 돈암동 일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대와 어머니, 아버님의 인연이라는 게 서로 깊게 엮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북에서 태어났고 46년에 할머니와 함께 월남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정착한 곳이 혜화동 일대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혜화초등학교를 다녔고요. 한국전쟁이 나고 나서 1.4후퇴 때 밀려서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한 3년을 지내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곳이 결국 돈암동입니다. 당시에 편지나 이런 걸 보면 돈암동 250번지라고 돼 있는데 지적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250번지는 없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² 돈암동에 자리를 잡고 할머니는 돈암시장에서 포목상을 시작하셨고요.

2 '돈암동 250-1번지'의 구토지대장에 근거하면 삼선동4가 345-1번지로 추정되나 정확하지 않다.

그때 아버님도 한국전쟁 직후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가 안암동 일대에 살던 친구 집에 와서 얹혀있었습니다. 안암동이라고 해봤자 성북천 따라서 쪽 걸어오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 친구 선배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일을 돕다가 어머니를 만났죠. 그게 돈암동 사거리입니다. 첫 인연도 돈암동에서 시작이 됐고 할머니가 여기 정착하고 사시니까 결국 여기로 다시 오게 된 거죠.

56년 10월에 결혼하시고는 그 시절에는 시골인 부여에 가서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어머

니가 신혼살림을 가까스로 시작했어요. 58년에 보령의 주산농고에 아버님이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아무 연고도 없는 주산농고 앞에 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한국전쟁기에 얻은 지병인 폐디스토마가 그때 악화돼요. 폐디스토마로 각혈을 하는데 폐결핵으로 안 거죠. 디스토마는 떨어져 살 필요는 없는데, 폐결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와 누이를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58년 여름 무렵부터 59년 1월에 신춘문에 당선될 때까지 부여에서 요양 생활을 하세요. 그 시기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마무리 지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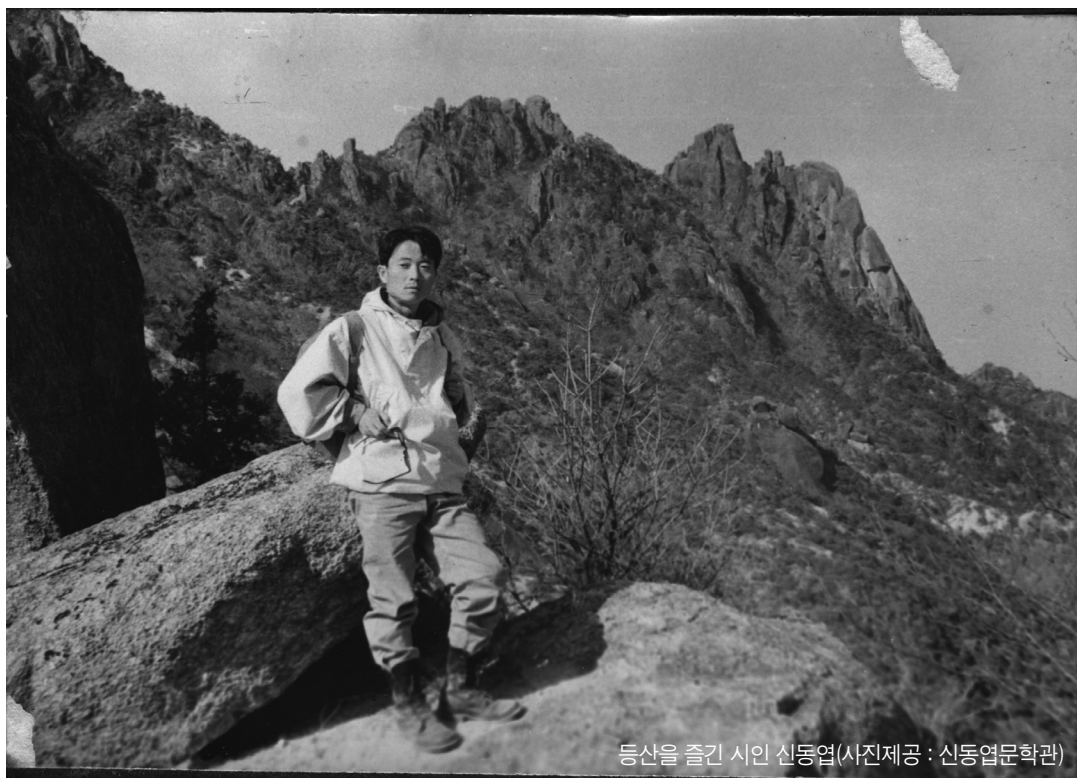
그리고 신춘문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쯤에 건강이 많이 나아져서 59년 한 2월경에 서울로 올라와서 세 식구가 비로소 합칩니다. 세 식구가 성북천변, 돈암동 성당에서 안암동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개천가 집에 월세로 셋방살이를 시작해요. 그해 5월에 제가 태어나지요. 59년부터 62년까지 거기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두세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때 제일 오래 살았던 집이 우리 어렸을 때 ‘동원네, 동원네’ 그랬는데 아마 주인집 아들 이름이 동원이었던 것 같아요. 단칸방에 세 들어 살았던 누이도 그런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5가 4번지를 얻어서 그 집은 매입을 합니다. 마침 61년에 명성여고 교사로 취직이 됐고 62년에 제 동생이 태어나요. 식구가 늘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도 됐고 하니까 당시 포목상을 하던 할머니가 돈을 대주면서 그 집을 사게 됐어요. 할머니의 포목상이 있던 돈암시장, 할머니택 돈암동 250번지 그리고 동선동5가 45번지 이게 한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 신동엽으로서 평소 모습은 어땠나요?

평소에 보면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등산을 가셨어요. 명성여고에서 야간 교사를 하셨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산에 갔다가 오후에 출근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으셨어요. 아버님 시, 산문에 보면 본인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에 관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아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젊어서 크게 고생을 하시면서 아주 병약해 건강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명성여고 교사 신분증. 동선동 집 주소가 적혀있다.
(사진제공 : 신동엽문학관)



등산을 즐긴 시인 신동엽(사진제공 : 신동엽문학관)

더 산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입니다. 다 받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오히려 집에서 보면 어머니가 좀 엄하고요. 퇴근길에 생각하면 박봉이었으나 당시에 어쨌든 돈암동에서 최고로 치던 태극당 식빵, 영양사 전기구이 통닭 이런 걸 사 오시곤 해서 저녁마다 기다렸죠. 혹시 오늘 사 오실까, 하고요. 그리고 친구분들하고 술을 드시고 들어오실 때면 신문지에다가 마른안주 싸서 주머니에 넣어서 돌아오시고 하시던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시인 신동엽으로서 글을 쓰실 때 모습은 어땠나요?

그 집이 아주 조그만 집이잖아요. 그래서 문간방은 세를 주고 건넌방은 애들이 쓰고 안방은 두 분이 기거하시고, 아버님 혼자만을 위한 서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마루에 조그만 상을 놓고 그 위에서 글을 쓰고 하셨죠. 시인인데 서재 하나도 없이 지내셨어요. 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마루에 있는 책장에 꽂혀 있었고요. 작은 시들이나 글들은 학교에서도 쓰시고 또 퇴근하고는 마루에서도 쓰셨죠. 서사시 「금강」을 쓰실 때는 국제펜클럽 기금을 받아서 쓰셨어요. 말하자면 창작기금이 있던 때라서 동네 여관을 구해서 몇 달간 나가계셨습니다. 이 북적대는 집에서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때 말고는 그냥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쓴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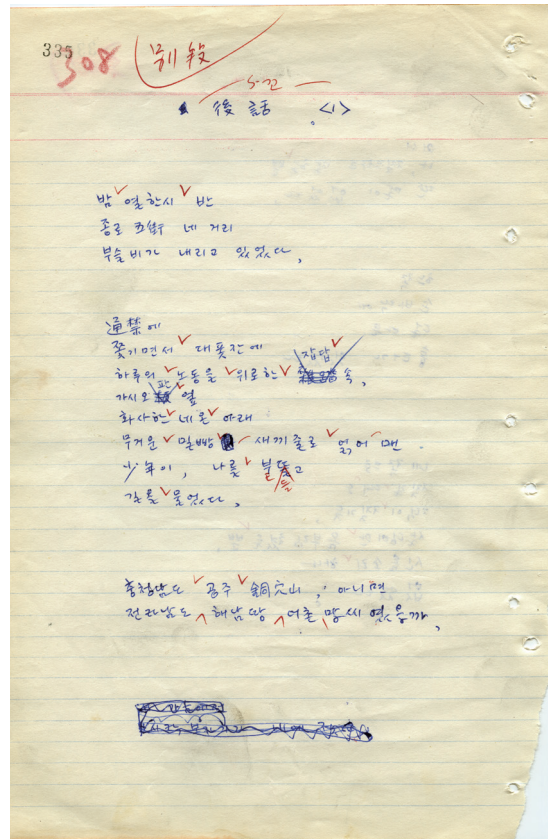
아버지의 작품에 투영된 어머니의 모습과 실제 두 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어머님이 아버님의 작품 안에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금강」에 여자 주인공 ‘인진아’가 사실은 어머니 인병선에 대응하고 그의 파트너인 남자 주인공 ‘신하늬’는 당신 자신을 대입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글을 쓰기가 편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는 북쪽 출신이고 아버지는 남쪽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베어 들어가 있는 인물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강」에서도 인진아는 궁에서 나온 사람이고 신하늬는 천민 출신이에요. 사실 어머니는 이북에서 상당한 지주 집안 출신이거든요. 한편 아버님의 집은 땅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작품 속에 투영돼 있는 것들을 보면 재미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두 분의 연애 시절과 결혼 초기에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아주 애절한 얘기들이 있어요. 두 분이 운명적인 사랑을 하신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었죠. 우선 아버님은 글 자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부장적인 사고틀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시절에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갈 정도의 수재였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분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버님은 세상사는 난 모른다, 그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님이 69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그 억척같은 성격과 도전 의식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게 됐죠. 어머님은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셔서 수년 뒤에는 제법 경제적으로 토대를 이루셨고 그걸로 기념사업도 하고 유물을 다 보존하고 또 문학관 건립하는 일도 이루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생전에 같이 계실 때는 티격태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큰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아버지 별세 당시 상황과 이후 가족들의 생활은 어땠나요?

1969년 4월 7일에 돌아가셨는데, 고생하신 건 두 달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간암이었으니까 복수가 많이 찼는데 누워있으면 아주 호흡이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니까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금강」초고 육필 원고(사진제공 : 신동업문학관)

턱을 괴고 계셨다는 얘기를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인 박봉우 선생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집 안에 장독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집 맞은편에 큰 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집이 배려해줘서 그 벽에 여러 장치를 하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현수막도 거기다 걸고. 당시 하근찬 선생님이 조사를 했고, 그리고 명성여고 학생들 30여 명이 와서 「금강」 7장의 앞부분을 단 채로 낭독하고, 그리고는 운구를 해서 파주로 옮겼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슬퍼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조그만 출판사에 들어가 교정 보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본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35년생이라서 사실은 10살 때 해방이 된 거라 일어를 제대로 모르세요. 아버님은 15살 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일어를 잘 하시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 과외까지 해서 결국은 일어 번역도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어머님께서 34세일 때입니다. 당시에 출판계의 풍토라는 게 일 끝나면 저녁에 다 따라오라고 해서 술 먹이고 하던 때인데 그거를 못 참으신 거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중 하나가 집에 노는 땅을 하나 북한강가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동안 미국에 가게 되어서 그동안 그 땅을 가지고 뭘 좀 해보라고 어머니한테 얘기가 들어온 거에



신동엽 장례식 당시 발인하는 모습(사진제공 : 신동엽문학관)

요. 가보니까 경치가 아주 괜찮고 터도 제법 넓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 뒤 무렵부터 거기에서 식당을 합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시외버스 타고 한 시간 반쯤 가면 갔어요. 거기서 매운탕도 끓여 팔고 하면서 약 6년 가까이 고생을 합니다. 저도 주말마다 가서 매운탕 날랐고요. 그러면서 가난에서 벗어나죠. 제법 장사가 돼서 제가 대학 들어갈 무렵에는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뭔가 정비를 시작합니다. 정비라는 게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이고요, 악착같이 돈만 추구하다가 이제 종교, 불교 쪽으로도 관심을 쏟고 문화계 인사들하고도 교류를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뒤부터는 지금 박물관을 만든 짚풀 문화 쪽에도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생활에 좀 여유가 생겼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까지 9년에서 10년 가까이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희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동선동 집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3년쯤 더 살았습니다. 3년쯤 더 살고, 이사를 한 이유는 사실은 돈을 아끼느라고. 할머니 맥이 성신여고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법 컸어요. 그래서 거기 세 들어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그리 들어간 거죠. 그게 밀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동선동 자택에 계실 때 친하게 지냈던 다른 문화예술인들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들르시고 하던 그런 분들인데, 소설가 남정현 선생님, 하근찬 선생님, 시인 박봉우 선생님 이런 분들은 워낙 가까운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공주에 계신 조재훈 선생님이라든지 구상희 선생님 이런 분들 왕래가 잦았어요. 김수영 시인하고도 왕래가 종종 있었던 걸로 사모님되시는 김현경 여사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로에 있는 통일문제연구소에 계신 백기완 선생님을 길에서 종종 마주치는데, 아버님한테 낙지볶음 많이 얻어먹었다고 저한테 잘 해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 소리를 농담 삼아서 종종 하십니다. 동선동5가 45번지 그 집에도 친구 분들이 종종 모였습니다. 모이면 안방에서 약주 한 잔들 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어른들 술 드시는 옆에 이불 쌓아놓은 위에 올라앉아 안주를 집어 먹고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럼 어머니는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다고 혼내는데 아버님은 그냥 빙긋이 웃고 그냥 두라고 그러셨던 기억도 납니다.

시인 신동엽에게 동선동 시절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님의 생애를 짚어보면 큰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 사셨어요. 한국전쟁 시기에는 부여에서 민청 선전부장을 한 것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뒤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국민방위군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국민방위군의 마지막을 경험하거든요. 고향에 못 돌아오고 남도 일대를 일년 가까이 방황을 해요.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내셨는데, 아버님 생전에 유일한 시집이 『아사녀』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사족이라고 해놓고 본인의 소감을 써놓으셨는데, 당신의 인생을 방랑기와 정착기로 나누세요. 방랑기라는 게 그런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고 정착기라는 게 59년 등단부터겠죠. 61년에 명성여고 취직하고. 결국, 동선동5가 45번지가 정착기이면서 동시에 방랑기에 축적된 내면



신동엽 연도 미상(사진제공 : 신동엽문학관)

의 시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시 안에 담아내는 그런 시기였어요. 말하자면 가장 생산력이 왕성했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신동엽이라는 그런 시 세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갈 정도이죠. 본인에게도 제일 행복한 시기였을 거고요.

교수님께서 지난 6월에 ‘신동엽의 서울시대’로 돈암동 답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성북구의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공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 좋을까요?

표지석처럼 뭔가 흔적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난번 문학기행이 계기가 되어서 문학기행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엇그제도 9월 초에 신동엽 문학기행을 하려는데 그 개천가가 뭘 의미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시인이신데 그 분이 문학기행을 서울시 지원으로 조직한다고. 그런 분들이 점점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표석 정도는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성북구 동선동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아버님 문학의 산실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살아있는 기획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2020년 상황에서 한반도에 혹은 민족에게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 그런 메시지들을 잘 조

성북구 동선동이라는 곳이 중요한 아버님 문학의 산실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살아있는 기획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2020년 상황에서
한반도에 혹은 민족에게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
그런 메시지들을 잘 조직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종의 메시지의 발신지 역할을 성북구가 할 수 있다면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직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종의 메시지의 발신지 역할을 성북구가 할 수 있다면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남북관계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금강」의 경우 통일맞이라는 단체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북한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2005년에 북한 공연을 했거든요. 문호근 연출본이 있었는데 문호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북한 공연이 결정돼서 김석만 선생님 연출로 북한에 가서 「금강」을 공연했어요. 봉화극장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당시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딱 그거 하나만이 북한에서 그런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공연 추진 중이고요.

예컨대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 부여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장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여 다음 고향이 성북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중심지가 된다면 성북구로서도 또 관련된 문화기관들로서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기획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꼭 신동엽이라는 사람을, 시인을 기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초대석 2

두 차

"우리는 재미있게 놀기 위해 래어났다!"

연극 「기차」 (극단 초인 제공)

- 박정의의 서울연극협회 성북구 지회장을 만나다

진행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정리_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성북연극협회의 박정의 회장을 만나기 위해 동선동에 위치한 극단 초인의 연습실을 찾았다. 그는 오랜 기간 연극을 해온 연극인이자, 성북구와도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연극협회 성북지부 지부장 권한 대행을 맡았고, 2020년부터는 정식으로 지부장 활동을 시작한다.

그에게 연극이란 무엇인지? 왜 연극을 하게 되었는지? 연극인으로서 또한 지부장으로서 성북구의 특별함은 무엇인지? 또 극단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연극인으로서 삶은 어떤지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다음은 지면상 길게 진행한 인터뷰 중 일부만을 정리한 것이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장 어려운 질문,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하. 저는 연극인이고요. 두 아이의 아빠고, 남편이고, '초인' 대표고, 연출이고. 연극협회 성북지부의 지부장을 하고 있고, 연출가 협회 부이사장을 하고 있고. 지금 17년째 성북에서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로 주거지를 옮긴 지는 10년 된 성북구 주민입니다. 이것이 자료로 나타난 나에 대한 소개인 것 같아요.

1. 연극을 시작한 계기

영어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연극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원래부터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연극을 하려고 영문과를 갔습니다. 처음부터 연극영화과를 갈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장손이라 선뜻 연극영화과를 간다고 말하기가 어렵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연극을 하는데 연출에 더 생각이 있던 사람이니까, 영문과가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곤 대학 시절 내내 연극반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가기 전부터 연극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연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제가 연극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하잖아요. 그때 성극에 참여해서 연극을 하면, 교회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저 꼬마 누구데 이렇게 연기를 잘해?”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크면서 학교에서도 장기자랑 시간이 되면 콩트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했어요. 조금 더 커서는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공연이든 그것이 영화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에 재주가 있는 것 같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극단 초인에 대해

극단 초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극단 초인은 2003년 1월 한성대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2002년 무언극 ‘기차’를 프로젝트 팀으로 발표했고 그 힘으로 극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이 무언극이었던 것처럼 배우, 배우의 몸과 움직임, 다양한 오브제와 영상, 조명 등 무대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주로 하는 극단입니다. 대사보다는 움직임과 이미지를 주요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 운 좋게 많은 해외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 초인을 창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처음 극단에 들어갈 땐 배우로 들어가야 되나, 연출로 들어가야 되나 그걸 잘 몰랐어요. 연출은 나이를 먹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95년도에 극단 ‘작은 신화’의 배우로 들어갔는데 한 6개월 만에 배우 그만하고 연출 하라고 해서 연출을 하게 됐죠. 의견이 분분한데, 배우를 못해서 그만하라고 했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웃음) 제가 봤을 땐 연출을 더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출을 하며 작품 몇 개를 발표했었죠. 그때 제 작품이 움직임을 주로 표현 수단으로 쓰는 작품이었어

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거창 국제 연극제’에 나가야 하는데 소속 극단은 있었지만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어요. 이름하여 ‘박정의 프로젝트’. 지원서 쓸 때 이름도 막 성의 없이 써서 냈던 것 같은데 이름도 막 지은 거죠.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기차’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그걸 공연하고 서울에 왔는데 반응이 괜찮았죠. 그래서 서울에서 재공연을 했어요. 반응이 괜찮고 하니까, 그 전에 있던 극단 대표님이 ‘독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2003년도 1월에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극단, ‘초인’을 만들게 되었죠.

창단 초기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첫 작품 ‘기차’를 발표했던 일이 잊히질 않습니다. 2002년 거창에서 발표했는데 공연 중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전 조명 오퍼를 했고, 배우들이 빗속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주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대사로 드라마를 진행하는 공연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공연은 말 한마디 안 하고 뛰고 춤추고 표정 짓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연이었어요. 천장도 없는 야외 무대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명이 평평 터지는데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만들어놓은 무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간신히 극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암전이 되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관객들을 의식했습니다. 객



인터뷰 중인 박정의 회장



연극 「기차」에서 눈 미술 장면 (극단 초인 제공)

석에도 폭우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0명쯤 되는 관객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우산과 우비를 입고 그대로 있었어요. 빗소리와 작은 엔딩 음악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암전 속에서 엔딩 음악이 페이드아웃되고 커튼콜 음악이 나오고, 잠시 후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우리와 같은 박수가 들려오기까지 그 짧은 순간이 잊히질 않아요.

우리과 같은 박수가 나왔는데 배우들이 커튼콜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분장실로 뛰어가서 보니 배우들은 공연 망쳤다고 우느라고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연은 정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 배우들도 그 작품은 하루에 두 번 반복 연습이 힘든 작품인데, 당시엔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어떤 부분은 수십 번 반복하며 미친 듯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와서 몇몇 장치는 망가지고 무거운 의상은 물을 먹어 움직임을 방해하고... 배우들이 속상해하는 것도 당연했죠. 빨리 뛰어나가서 인사하라고 배우들을 밀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극단 초인의 연극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첫 작품 '기차'예요. 그걸 만들 때, 그리고 그걸 재공연을 하면서 팀이 바뀌는데, 바뀐 단원들에게 그 메소드를 계속 연결시켜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저의 연출적인 방법론이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들었다, 그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번에 에든버러에서 연기상을 받았던 '1인극 맥베스'예요. 제목을 좀 많이 바꾼 작품임

니다. 관객이 안 들어오니까. 서울에서 공연할 때는 ‘독고다이 맥베스’ 이렇게도 해 보고 ‘어느 배우의 슬픈 멜로 드라마 맥베스’ 이렇게도 했던 작품인데, 우리끼리는 ‘1인극 맥베스’라고 해요. 우리 극단에 맥베스가 두 작품이 있어요. 여러 명 나와서 우리 전통 무용으로 하는 맥베스가 있고, 1인극 맥베스가 있는데 이 1인극 맥베스가 저한테는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느낌입니다.

연극 ‘스프레이’와 ‘맥베스’로 2019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작품들인가요?

‘스프레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소심한 결벽주의자 남자의 시끄러운 옆집과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죽음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움직이는 원과 영상을 결합하는 시도였어요.

‘1인극 맥베스’는 부조리함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맥베스와 같은 악마를 동경하는 한 영혼의 분노의 몸부림, 울부짖음입니다. 이걸 특별한 연출적 장치 없이 온전히 배우의 에너지로 표현되는 작품이라 배우가 정말 힘든 공연입니다.



연극「맥베스」(극단 초인 제공)

1 ‘스프레이’가 베스트 연출상과 베스트 테크니컬 프로덕션상을 수상하고, ‘맥베스’의 이상희 배우가 베스트 연기를 수상했다.

극단 초인에게 이번 수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1인극 맥베스'를 발표할 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죠.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그것도 여성이 1인극으로 표현하는 시도 안에서 이 정도면 정확하게 그 작품의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변과 평단의 반응이 특별하게 없어서 실망한 상태였어요. 힘들기도 했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에든버러 갔을 때 상을 받았죠. '스테이지'라는 신문사에서 에든버러 페스티벌 전 기간을 통해서 9명인가 10명만 주는 상이었어요. 출판 작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배우들도 엄청 많고. 근데 거기서 연기상을 준 거예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연출상은 다른 작품 '스프레이'로 받았어요.

한동안 극단 초인이 '비수기'라고 할까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 인사할 곳도 많아지고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어딜 가든지 축하 인사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축하 받을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단원들한테도 큰 힘이 되죠. 사실 공연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연극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배우들에게는 제일 큰 보답이 그거죠, 객석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 그다음에 이런 상. 이런 상을 받으면 '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헛되지 않구나.'라고 느끼죠.

배우들에게는 제일 큰 보답이 그거죠,
객석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
그다음에 이런 상을 받으면
'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헛되지 않구나.'
라고 느끼죠.

사실 예술가라는 것이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쁘게 치면 아무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도 예술 해', '나도 연극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동료들이든, 관객들이든, 평단이든. 보통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연출가라고 떠들어도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연출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연출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내 존재감이 조금 세워지는 순간인 거죠. 상 하나에 의미 부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맛에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웃음)

극단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웃음) 아! 그런 건 있어요. 최근 제



가 그동안 무언가 작품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때 막 몰입해서 가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싶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작품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차분하게 준비하고, 미리 탄탄하게 준비해서 공연을 많이 하자, 우리 단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웃음)

3. 성북연극협회에 대해

성북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2년 말쯤에 극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2003년도에 연습실, 사무실을 구하러 다니는데, 모든 조건이 한성대 앞쪽이 딱 좋았어요. 대학로에서 가깝고, 저렴하고. 우린 대학로에서 멀어지는 것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형편이 좀 좋아져서 2006년에 현재 동선동 연습실로 오게 됩니다.

성북연극협회의 활동과 특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지향점 등).

성북연극협회는 성북 연극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초기

에 많은 지역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성북페스티벌’과, ‘더운데 산책갈까’, ‘서울시민연극제’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협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연극협회가 다른 지역의 협회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회원 수는 아주 특별합니다. 1~2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10배, 이런 수준이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연극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려운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역 안에서 응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푸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시대인데 어디 한 군데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최선의 답은 뭘까, 차선의 답은 뭘까, 이것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성북연극협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북연극협회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올해 성북연극협회의 첫 화두를 ‘소통’으로 두고 있어요. 협회가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고,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어떤 정책을 요구하려고 해도 너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연습실 만들어주세요’, ‘아니, 연습실 왜 만들어? 극장 만드는 게 낫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극장, 연습실 이런 거 만들지 마. 누구만 좋아. 차라리 그냥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아.’ 그러면 또 누군가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만 유리하잖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부터 정리되어 나가야 하는데,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걸려질 거라고 봐요. 우리에게선 훌륭한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음) 그런데 걸러지는 과정까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인터뷰를 봐도 연극인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할 말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말하자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돈이나 조금 주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원금 많이 주는 것, 그러니까 문화예술 지원액의 총량을 늘리는 것, 그것이 1순위입니다. 더 많은 지원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극인의 수를 볼 때도 절대적인 액수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적은 액수라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용돈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 아이가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두 아이가 그 용돈을 효과적으로 쓰기도 하고 낭비하게도 됩니다. 그 차이가 아이들의 인성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용돈을 주는 방식, 주는 태도에 달려있거든요. 지원금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고민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연극이 도 대체 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어 지원을 해야 하나?’라고 묻습니다. 회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볼 거예요. 왜 태어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서 살면 좋지? 제일 좋은 건 놀면서 사는 거죠. 일도 왜 해요? 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사실은 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잘 놀고 재밌게 놀고, 한 세상 살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일하고 남는 시간에 일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가 없다면,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왜 부를 축적해야 하고 이런 의미들이 다, 어떤 한 고리가 빠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내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도 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조금 더 모으려는 것도 다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건데, 이 ‘재밌게 논다’라는 것이 결국 문화잖아요. 요즘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재밌게 노는 문화 속에서 산업이 더 발달하기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기술로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놀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놀이에서 부가가치를 꼭 창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싸여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과 주목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밌게 놀다 가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행복권이잖아요. 그 행복권을 추구하려는 데 문화가 없으면 뭘 하고 놀 수 있을까요? 이게 제 답변입니다.



최 박수진 과장, 우 박정의 회장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밌게 놀다 가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행복권이잖아요. 그 행복권을 추구하려는데 문화가 없으면 뭘 하고 놀 수 있을까요?

2020년 성북연극협회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우선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협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원들의 지지가 힘인데 아직은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는 협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지금도 조금씩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성북연극인의 위상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무리해서 성북페스티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협회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협회가 하는 것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창작환경을 개선해내거나 시스템을 만들어 내거나 국가에 제도를 제안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창작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협회의 상징성을 갖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인터뷰를 마치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극단이나 연극 작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북구에 ‘명품’ 극단이라고 있어요. 김원석 연출님이 하시는 극단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공연을 보고 반했죠. 빈 무대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솜씨가 기발해요.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를 만드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동선 연출의 ‘몽썬어터’. 아주 세련되고 자로 잰 듯한 동선을 만들어내는 팀이죠. 하나 더 꼽자면 서지혜 연출 ‘프로젝트 아일랜드’, 주용필 연출의 ‘에모리’, 민새롬 연출의 청년단...

마지막으로 2020년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을 잘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웃음) 오늘에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예요. 그래도 극단의 대표나 협회의 장로서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극단 대표로서의 목표는 ‘좋은 신작을 하나 꼭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단원들이 많은데 ‘함께 극단 시스템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성북 지부 회장으로의 목표는 우선 성북 지부 일에 많이 집중해 볼 생각이고 회원들과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간 이육사를 소개합니다

글_ 최인담(성북구청 문화체육과 학예사)

2019년 12월 17일 오후 3시 ‘문화공간 이육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1939년부터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며 대표작 「청포도」를 발표한 이육사를 기리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가꾸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이육사를 기념하는 공간이 생겼을까요? ‘문화공간 이육사’는 원래 성북구 종암동에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암동 주민들이 앞장서 이육사를 알고 알리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문화공간 이육사의 건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육사 선생님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님의 노력, 성북문화원과의 뜻깊은 조우, 선생이 종암동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한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육사는 어떤 인물이며, 종암동 62번지는 어떤 곳일까요? 본명은 이원록으로,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중국에서 유학하였고 대구에서 활동하며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장진홍 의거), 대구격문사건 등에 연루되어 수차례 옥살이를 했습니다. 중외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는 한 편, 1932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훈련을 받고 국내로 돌아옵니다. 군사간부학교 출신으로 구속되어 손발이 묶였으나, 정인보의 집에서 신석초를 만나 교우하며 문학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1937년 이후 활발히 문학작품을 발표하며 문인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1939년부터 가족과 함께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분가하기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부친의 호상소도 바로 이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폭압은 나날이 극심해졌으며, 조선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1943년,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던 이육사는 모친과 만형의 소상(小喪)에 참여하러 잠시 귀국했다가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중국으로 압송되어 베이징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듬해 1월 16일 베이징 동창후통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동지이자 친척인 이병희 여사가 수습하여 동생에게 인계하였으며, 호상소는 성북동 122-11번지에 차려졌습니다. 유해는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60년에 고향 안동 원촌으로 이장되었습니다. 40년의 짧은 생애지만 이육사 선생의 독립운동과 작품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종암동에 거주한 시기도 매우 짧지만 선생이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



3층 교목 기획전시실 및 커뮤니티 공간



2층 광야 상설전시실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간 이육사’는 서울에 남아있는 이육사 선생의 흔적을 찾는 작지만 중요한 공간입니다.

‘문화공간 이육사’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이육사를 기념하는 전시실과 지역 내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민의 문화생활을 돕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가꾸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우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념관, 문학관 등의 이름에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화공간 이육사’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전시실과 교육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지역문화를 가꾸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문화의 대표성을 갖는 이육사를 기념하는, 말 그대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으며, 많은 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망이나 미움도 애정과 관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도 개관을 기념하고 조금씩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공간 이육사’라는 이름과 층별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었습니다. 공모된 이름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육사라는 이름을 숫자 264라고 표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명칭 공모 심사위원으로 자리하신 김종훈 교수님(고려대학교), 김태빈 선생님(한성여자고등학교)께서 264라

264, 혹은 64라는 수인번호로 널리 알려진 육사(陸史)라는 이름의 육(陸)자는 육지, 언덕을 뜻하는 동시에 묻다, 죽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한 이름에는 식민지의 모순을 담으려는 선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는 숫자 표기로는 이육사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며 한 목소리로 조언하셨습니다. 264, 혹은 64라는 수인번호로 널리 알려진 육사(陸史)라는 이름의 육(陸)자는 육지, 언덕을 뜻하는 동시에 묻다, 죽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한 이름에는 식민지의 모순을 담으려는 선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이육사를 표기했고,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층별 명칭도 각 층의 기능에 따라, 이육사 선생의 작품 중 어울리는 작품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1층 ‘청포도 라운지’는 청포도 한 알, 한 알이 모여 포도송이를 이루는 것처럼, 주민들이 알알이 모이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아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한쪽에는 도서 열람이 가능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문화공간 이육사’를 둘러보는 동안 이육사와 성북구의 역사문화를 자연스럽게 감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짧지만 강렬한 이육사의 생애를 굵은 밧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시각각 이육사를 읊아매는 일본 경찰의 압박에도 독립운동과 작품 활동을 했던 이육사의 생애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2층 광야 상설전시실은 유고시 「광야」를 주제로, 육사 선생의 삶을 담았습니다. 국어 교과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한일관계 80년을 담은 회고록, 시대별로 나온 작품집 등 자료와 영상을 통해 이육사의 활동과 작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영상실에서는 「광야」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층은 이제 막 심은 나무와 같은 ‘문화공간 이육사’가 무럭무럭 자라 ‘바람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나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교목 기획전시실 및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 2회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강좌, 영화 상영회, 문화행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정 옥상정원은 ‘절정’이라는 시를 모티브로, 냉혹한 식민지를 엄정한 자세로 굴복하지 않고 살아간 이육사의 삶과 작품을 담고자 했습니다. 선생이 태어난 고향 안동, 서울 종암동 거주지, 숨을 거둔 중국 베이징 동창후통 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의 거리와 방향을 표시한 야외 의자, 그리고 서울 하늘을 사랑한다는 글귀가 적인 「계절의 오행」 중 일부를 친필 원고에서 집자하여 남겼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버려지는 공간 없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들을 섬세한 눈으로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육사가 종암동에 거주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자, 유고시 「광야」가 『자유신문』으로 발표된 뜻깊은 날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이옥비 여사님, 석주 이상룡의 후손 이항중 선생님과, 소설 『그 남자 264』의 고은주 작가님을 비롯해 종암동 주민들의 성원은 작고 아담한 공간을 빼곡히 채우고도 남아 점차 주변으로 흘렀습니다. 이육사의 생애와 작품이 당시대를 넘어 현재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듯, ‘문화공간 이육사’ 역시 선생을 기리고 지역문화를 가꾸는 공간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관식과 더불어 개관기념특별전 ‘식민지에서 길을 잃다, 문학으로 길을 찾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1월 16일을 전후해 꼭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문화공간 이육사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여는 날 :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닫는 날 : 매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관람문의 : 02-928-0264

특집 2 | 재조명 받아야 할 성북의 독립지사

삼균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한 사상가



조소양선생

조 소 양

글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언젠가부터 삼선교·한성대입구역 버스정류장을 안내하는 목소리에는 ‘조소양 활동 터’라는 설명이 붙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생긴 변화이다. 그런데 막상 조소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도대체 무엇을 한 사람일까? 독립운동에서 그의 위상은 무엇이고 성북구와 그와의 관련성은 또 무엇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그야말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성북구 탄생 70주년에 딱 알맞은 상징적인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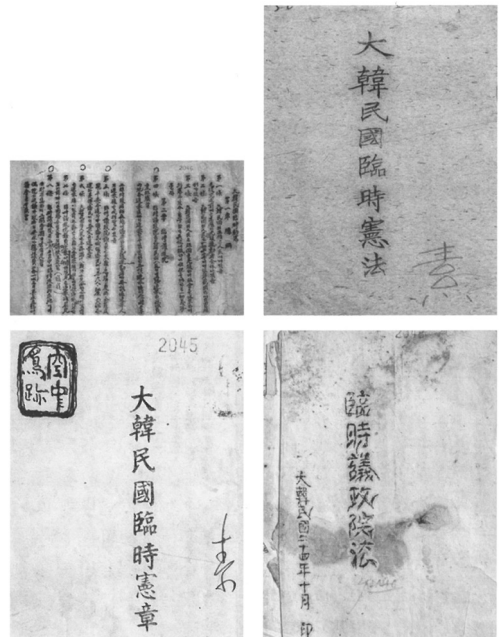
그의 이야기를 거꾸로 찾아가보자. 그는 1950년 5월 30일 벌어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북구에 출마하여 경무부장을 지낸 조병옥과 맞붙었다. 거물과 붙은 것이다. 하지만 조소앙의 인기는 높았다. 다급해진 조병옥은 선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소앙이 공산당의 정치자금을 받아쓴 것이 탄로나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월복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럼에도 조소앙은 3만 4천여 표를 얻어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임시정부의 요인이었던 그는 해방 이후 한국에 돌아와 다른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모든 국민이 바라던 바였다. 분단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북한으로 가서 남북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역시 분단을 원하지 않던 국민들이 원하던 것이었다. 남북협상에 참여해서 그것이 북이 준비할 정치적인 이벤트였음을 확인하고, 남한 단독정부 지지로 돌아서고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나선 것이 바로 1950년 5월의 총선이었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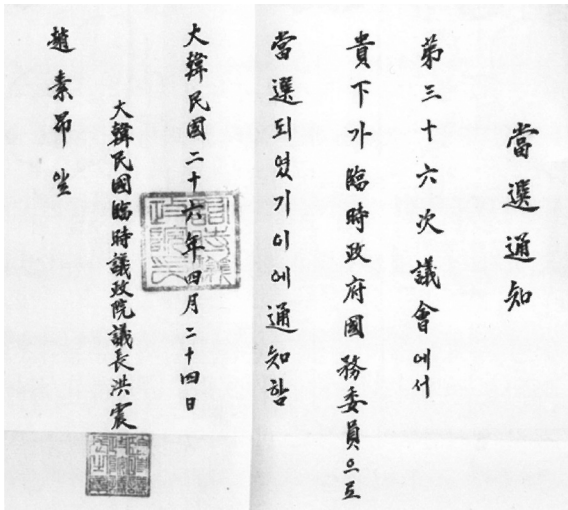
하지만 또 의문이 생긴다. 그는 임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에 해방 이후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일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그의 독립운동 활동, 삼균주의 그리고 민주공화정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했다. 그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후 모든 인민이 평등함,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통선거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보적인 내용이었다. 이 기초를 잡은 사람이 바로 조소앙이다.



조소앙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등록표
돈암동 445의1번지라는 주소가 선명하다
(조소앙기념관 소장)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본문,
대한민국임시헌법 표지, 임시의정원법,
대한민국임시헌장



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당선통지문.
(조소앙기념관 소장)

이후에도 조소앙은 임시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1919년 5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고 간 것은 회의 종결 이후 도착하여 실패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영국, 프랑스, 덴마크, 리투아니아, 소련 등지를 돌며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다.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철학자인 앙리 베그르송을 만났고,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인사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상해로 돌아온 이후에는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외무총장, 내무부장, 외부부장 등의 요직을 걸쳤다.

조소앙이 임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1918년부터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정립했다. 손문의 삼민주의와 서양의 ‘천부인권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균등생활을 실시하려는 주의’이며, 내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절히 조합된 이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균등’이었으며, 이것은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거쳐, 1930년대에는 민족주의 우파계열 독립운동의 기본이념이었으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상적 논의 때문에 그는 임시정부의 중요 인물(要人)로 활동할 수 있었다.

삼균주의가 19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그의 활동은 임시정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887년 파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한학(漢學)을 배웠으며, 1902년에는 성균관에 입학했다. 1906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그곳에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를 창립했다. 경술국치 때에는 ‘한일합방 성토문’을 작성하고 비상대회 소집을 꾀하려다 발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1911년 조선유학생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이 되었다. 1919년 2월 1일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2월 8일에는 2.8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다. 그야말로 독립운동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아쉽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1950년, 그가 전국최다득표로 당



조소앙기념관에 전시된 국회의원 당선 사례 / 나의 출마 이유와 정견
/ 신당 준비위원회 소감문(조소앙기념관 소장)

선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 의해 납북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모시기 공작’이었다. 당시 같이 납북된 김의한의 부인 정정화에 의하면 북측 인사에 의해 김의한은 ‘조소앙 선생 택 회의’에 불려간 다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북으로 간 그는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끝까지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경직된 북한사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의 최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숙청·투옥되었다가 사망했다고도 하고, 엄항섭 등의 투옥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다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도 전한다. 사망일은 1958년 9월 10일이며, 현재는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어 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서는 쓸쓸한 최후였다.

납북, 그리고 북한에서의 활동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오랫동안 그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됐다. 오히려 남쪽에서 일어난 정치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낙 업적이 출중한 인물이었기에 1970년대부터 복권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학계에서 그의 업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1989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업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중에 최고 등급은 대한민국장을 그에게 수여하면서, 그를 완전히 복권시켰다.

‘독립운동가’의 도시 성북에서도 그만큼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쉽게 찾기 힘들다. 이제 우리부터 그를 기억하기 시작하자. ‘조소앙 활동 터’였던 삼선교에는 그가 살았던 집 등 아직 그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집 2 | 재조명 받아야 할 성북의 독립지사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

이 사진의 독립영웅을 아십니까?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거움

성북동 출신
항공독립운동가
최용덕 장군

글_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카드 뉴스

성북문화원에게 2019년은 카드뉴스의 해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넘게 성북구와 관련 있는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에 연재했다. 무오독립선언, 2.8독립선언, 조화벽, 정재용 등 우리 구와 관련 깊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사람들을 카드뉴스 몇 장에 대표적 이미지와 텍스트로 깔끔하게 요약해 업로드했다. 팔로워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독립운동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서 알려달라는 분, 그동안 이런 분들을 왜 우리가 몰랐나 하시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다. 반응들을 접하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이런 일을 하지 못했나 하는 반성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일을 우리 문화원의 지속 사업으로 삼기로 했다.



하국은 우리의 활동지
 하국 없지 못하
 우리의 앞
 최용덕

▲ 최용덕 장군 친필 (1898.9.19 ~ 1969.8.15)

1. 의열단에 가입하여 김상옥, 김시현의 폭탄의거를 지원한 사람
2. 한국광복군 비행대 창설을 추진한 사람
3. 광복후 대한민국 공군창설을 주도하고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사람

바로 **최용덕 장군** 입니다.



▲ 1949년 10월 1일, 공군사관학교 간부 및 제1기 사관생도들이 공군 창군을 기념하여 사진촬영

1898년 성북동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여 일제와 싸웠으며 의열단에 가입하여 김상옥과 김시현의 폭탄의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부 총무처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광복군 비행대 창설을 위해 힘썼으며, 이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공군창설로 이어집니다.

오늘, 8월 15일은 그가 별세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생 조국의 광복과 공군창설을 위해 살아온 그의 유언을 되새겨봅시다.



내가 죽으면 군복을 입혀 물어달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고 죽는게 한이다.
 - 최용덕

독립된 통일 조국의 공군을 창설하여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그의 꿈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 1898년 서울 성북동 출생
- 1910년 베이징으로 유학
- 1919년 기미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북경지역에서 대한독립정년단 단원으로 모집
- 1923년 김상옥 의사의 조선총독부 폭파 의거를 위한 폭탄 확보와 조선 반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1923년 한교동지회를 조직해 기관지를 발간
- 1943년 조종사 인력 양성과 비행기 구입 운동 추진, 공군설계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주도
-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초대 국방부 차관
-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



중국 중앙항공학교 졸업생 명부에 수록된 최용덕의 사진
(출처: 『항공독립운동가 광복군 최용덕』,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2018)

창석 최용덕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서는 창석(滄石) 최용덕(崔龍德, 1898~1969) 장군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작성해 올렸다. 이날은 최용덕 장군이 서거한 지 꼭 50주기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최용덕은 항공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분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자이다. 최용덕은 1898년 5월 서울 성북동 265번지에서 대한제국 군의관 최익환의 3남으로 태어났다. 1914년 봉명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베이징에서 대한독립청년단에 활동하기 시작했다. 1922년부터는 의열단으로 활동하며 김상옥(金相玉)·김시현(金始顯) 열사의 의거를 지원했다. 한편 1920년에는 중국공군군관학교에 입학, 수학한 뒤 이 학교 교관, 중국수상비행대장, 중국공군지휘부 참모장 겸 공군기지사령관, 중국공군기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1940년부터는 중국군에 적을 둔 채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에 들어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참모처장·사령관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광복군을 이끌었다. 해방이 되고 귀국해서는 국방부 차관,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공군 창설과 공군력 증강을 위해 힘썼다. 전역 후에는 체신부장관 주중화민국대사를 역임했으며 1969년 8월 15일 신길동 공군관사에서 72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대략 이와 같은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만들긴 했으나 그의 칠십 평생을 몇 장의 카드에 담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일생에서 불꽃같았던 한두 장면을 포착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최용덕의 경우는 달랐다. 사람의 일생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그는 누구보다 많은 가지와 옹이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결정적 장면들이 너무나 많

았으나 일일이 그 맥락까지 소개하지 못함이 아쉬웠다.

민족을 위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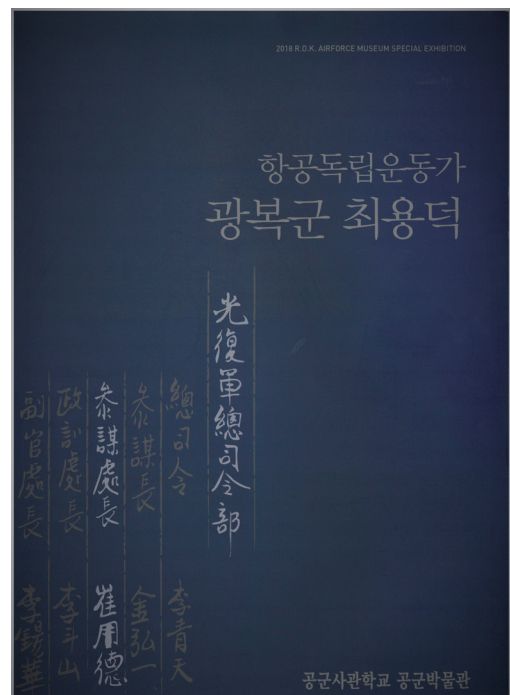
그로부터 두 달 후 성북문화원은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채록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성북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열 분을 선정해 그 후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채록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이었다. 기획 과정에서 박수진 운영과장이 최용덕 장군의 외손녀 반춘래 님과 연락이 닿았다. 현재 스페인에 살고 있는데 11월 공군사관학교에서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이 있어 잠깐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였다. 짧은 체류 기간이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는 반가운 답을 받은 우리는 그녀를 용산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공식자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외할아버지 최용덕의 일화와 평소의 면모와 성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중에서 두고두고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최용덕은 월급을 받아오면 매번 생활비와 다른 돈을 분리해서 부인인 호용국 여사에게 주고는 생활비 외의 돈은 누구누구가 찾아오면 주고, 또 누구누구에게는 쌀을 사서 보내라는 식으로 분부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따랐다고 한다. 그런 일은 중국에서 비행사로 활동했을 때부터 평생 계속되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돈은 당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들이나 후배 군인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 때문에 최용덕이 남긴 유산은 임종 직전 이제 한 살인 외손녀 반춘래 씨에게 우유를 사주고 남은 주머니 속의 240원이 전부였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삶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며 놀랐다.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렵פות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에게 민족은 높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위하는 삶의 원리인 것 같았다.

『항공독립운동가 광복군 최용덕』 표지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2018)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

반춘래 님을 만나고 며칠 뒤 한 권의 책이 문화원에 도착했다. 『항공독립운동가 광복군 최용덕』이란 크고 두툼한 책이었다. 2018년 공군사관학교에서 발행한 책으로 감사하게도 반춘래 님이 직접 공군사관학교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화원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최용덕의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기록물을 망라하여 소개한 책이었다. 시간을 내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봤다. 고향을 떠나



술한 고난을 겪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한 편의 영웅 서사시를 읽는 느낌이었다.

책을 읽으며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베푸 선물이라는, 지난날 학교에서 배운 역사 상식(?)이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해방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죽기를 각오한 싸움으로 얻은 대가였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선물이기는커녕 강대국들 간의 흥정 탓에 제값을 못 받은 절반의 대가였음이 분명했다. 최용덕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중국의 통일문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전취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중국 통일을 위하여 이역창공에서 맹렬히 활약하였고 그 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항공인들은 동아의 침략자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데 큰 공훈을 세웠던 것이다.

—「중국에서 활약하던 우리 조인(鳥人)들」(1951) 중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국권 상실 이후 민족 독립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길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했다. 그 중 대표적인 노선 가운데 한 가지는 중국과 힘을 합쳐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최용덕은 중국 국민당 정부를 도와 중국의 통일을 이룬다면 이를 기반으로 일본을 대륙에서 몰아낼 수 있고, 그러면 자연히 한반도도 일본의 손아귀에서 풀려나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국민당 정부의 중앙항공학교에서 비행을 배우고 가르쳤으며 중국의 하늘에서 일본 전투기와 싸웠다. 그에게 중국의 하늘은 타국의 하늘이 아닌 아시아의 하늘이요, 세계 모든 피압박 민족의 하늘이었던 셈이다. 이런 생각은 최용덕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해외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 조선의용대 등에 속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해외 곳곳에서 군대를 만들어 일본과 싸웠고 또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피와 땀은 민족의 완전한 독립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전후 강대국들끼리 모여 만든 국제질서는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었다.

지난 시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독립운동사는 지나치게 소략한 것이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활동을 했으며 무슨 고민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이름과 연도만을 외우기에 바빴다. 지금도 기억나는 시험문제 한 가지는 카이로회담, 알타회담, 포츠담선언 등 연합국간 전후 처리 순서를 알아맞히는 것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는 전승국들 간의 합의를 8.15해방의 중요한 원인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한 최용덕의 기록들은 지난날의 고정관념에 갇힌 우리의 역사 인식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독립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피땀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최용덕의 기록들이 웅변하고 있었다.

최용덕 장군은 국민당 정부의 중앙항공학교에서
비행을 배우고 가르쳤으며
중국의 하늘에서 일본 전투기와 싸웠다.
그에게 중국의 하늘은 타국의 하늘이 아닌 아시아의 하늘이요,
세계 모든 피압박 민족의 하늘이었던 셈이다.
이런 생각은 최용덕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해외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 조선의용대 등에 속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찾고 알아가는 일의 보람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찾고 알리는 일은 단순히 우리 구의 유명 인물 한 사람을 추가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독립운동가들이 지냈던 민족을 위한 결연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이를 거울로 삼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기 위한 일이다. 또 그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좁다란 역사관을 타파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올 한 해 독립운동가 창석 최용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느꼈던 것이다.

성북구와 인연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 행적과 사연을 알지 못하는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은 꾸준히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찾고 그들의 삶과 정신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9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1

조선 후기 성북동
문화지도의 중심

황윤명

글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가을 성북문화원에서 바라본 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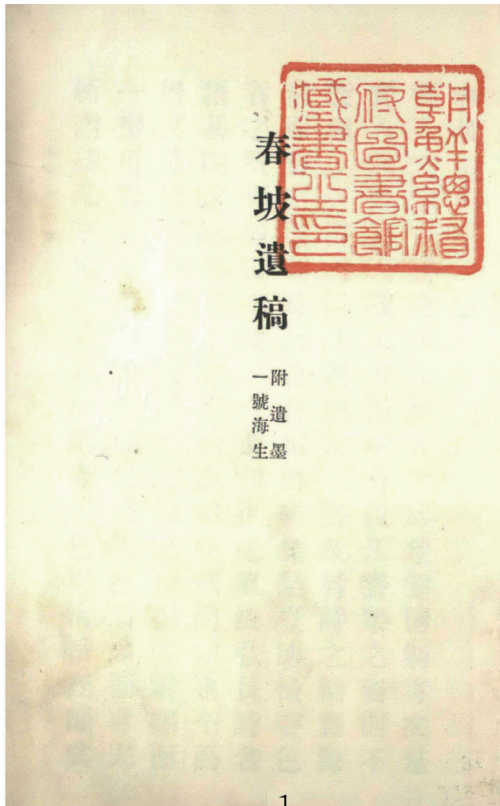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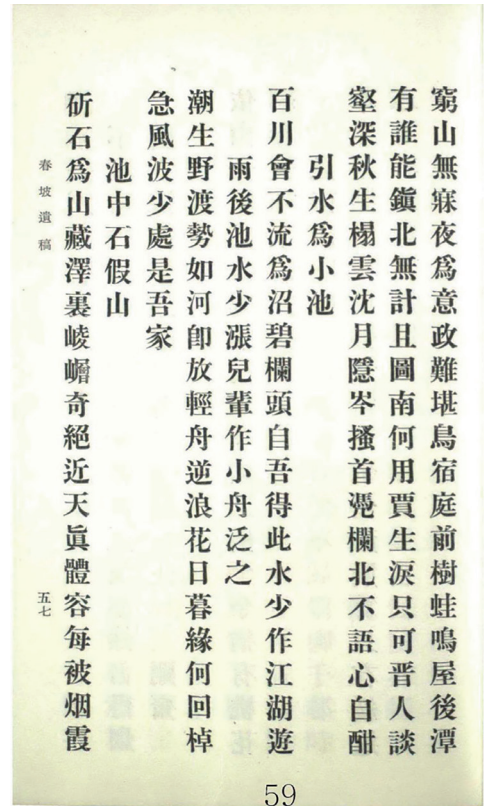


올해(2019) 5월 성락원에 대한 기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었다. 『조선의 비밀정원』 성락원? 문화재적 가치 거의 없다. 『뉴스톱』, 2019년 5월 2일].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도 후속보도와 『조선 때 별장 근거 없는 ‘성락원’에 27억원 예산 지원한 정부』 『한겨레』, 2019년 5월 30일] 반론이 <반론> ‘명승 문화재’ 성락원은 경관적 가치가 충분하다 『뉴스톱』, 2019년 5월 7일] 이어졌다. 핵심은 ‘성락원’이라는 별장의 이름이 조선 후기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철종 대에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문화재청 역시 성락원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 정보 오류’ 명승 성락원 역사 고증한다』 『매일경제』, 2019년, 5월 30일].

성락원의 원래 주인 ‘황윤명’

심상응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성락원(이하 ‘성락원’으로 표기)이 ‘철종 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성락원은 역사성이 없는 것인가? 성북문화원은 오래전부터 이를 추적해 왔고, 그 결과 황윤명(黃允明)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다.

그는 내시였다. 그래서 더 주목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도 무시 받았고 현대 사극에서도 희화화되기 일 수였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애써 외면하려 해왔는지도



춘파유고의 표지와 인수위소지(引水爲小池)가 나온 부분

모른다. 하지만 ‘성락원’을 조사하면 할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성락원’ 영벽지에 새겨져 있는 ‘인수위소지(引水爲小池)’라는 제목의 시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백천회불류(百川會不流) 여러 줄기 물을 모이게 하여 흐르지 못하게 하여
 위소벽난두(爲沼碧欄頭) 푸른 난간머리의 (소)沼를 만들었네.
 자오득차수(自吾得此水) 내 이 물을 얻은 후에는
 소작강호유(少作江湖遊) 잠깐이나마 강호를 만들어 노닐었다.

- 癸卯 五月 孫文鶴 書 계유년 5월에 손자 문학이 쓰다 -

이 시가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황윤명의 유고집인 『춘파유고』에 있기 때문이다. 즉 황윤명의 시가 바로 이곳에 새겨진 것이다. 물론 훗날 누군가 - 예를 들어 손자 문학 - 가 이 시를 새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내용이다. 황윤명이 영벽지를 직접 조성하고 시를 썼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성락원’ 초입에는 ‘쌍류동천(雙流洞天)’이란 글씨가 각자되어 있는데 『춘파유고』

에는 ‘쌍류동(雙流洞)’, ‘쌍계(雙溪)’라는 말도 등장한다. ‘인수위소지(引水爲小池)’라는 시도 본인이 이곳에 연못을 만들었음을 적고 있다. 시의 제목 자체가 ‘물을 끌어 작은 연못을 조성했다’는 뜻이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성락원’의 원래 주인은 사료에서 찾을 수 없는 이조판서 심상웅이 아니라, 황윤명이라는 내시였다.

인간 ‘황윤명’

황윤명은 단순히 ‘내시’가 아니었다. 사실 내시라는 것으로 폄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먼저 그는 대단히 성공한 관료였다. 14세에 고향을 떠나 경성 양(楊)지사 봉협(鳳協)의 양자가 된 그는, 20세에 내관에 응시하는 경과(經科)에 올랐으며, 24세에 장번(長番)에 입사(入仕)하고, 30세에 원자궁전언색(元子宮傳言色)으로 승진하였으며, 곧 종1품 명례궁대차지(明禮宮大次知)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1893년에 퇴직한 그는 곧 성북동에 자신의 별장을 만들고 은거 생활에 접어든다. 이러한 그였기에 대한제국 황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수연(壽延)은 고종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다. 의친왕은 황윤명의 사후 그의 별장을 이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삼산의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역시 황족 가운데 한 명인 이재완도 삼산학교에 와서 선물을 주고 갔다. 모두 황수연과의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평가가 갈리기는 하지만 그를 청렴한 관리로 묘사한 기록도 있다. (『매일신보』(1916.02.22.) 고서(古書)와 고화(古畵)를 많이 모은 수집가이기도 했던 그는 성북동 별서에 추성각(秋聲閣)이라는 장서각(일종의 도서관)을 따로 짓기도 했다.

성북동의 문화지도의 중심인물 ‘황윤명’

그는 교육자였다. 황윤명은 현재 성북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1907년) ‘삼산의숙’의 창립은 물론 학생들의 소풍비용을 내고 학용품을 사주는 등 운영에도 깊게 관여했다. 그가 죽자 삼산의숙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정도였다.

삼산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



三山學校紛糾爆發

京城府에寄附論擡頭로

教務主任의 主唱에 關係者 反對

[illegible]

理解 못할心事!

後援會側의 反對理由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런 영문로해서 洋報의 기
부를 紙報에서 發賣한것이
나 아닌가 주종이나 이것은
성실정도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

1.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2.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3.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4.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5.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6.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7.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8.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9.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10.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illegible]

는 여정으로 동경에서 출발
키로 평근도로 옮겨와 고갈
산골가 열창소에서 여제 때

삼산학교 문제를 다룬 기사(동아일보 1938.12.08.)

황윤명은 문인이기도 했다. 정선군수(旌善郡守)를 지낸 오형묵(吳弘默, 1834-?)의 『총쇄(叢瑣)』를 보면 그가 성북동의 참판 김병시(金炳始)의 집과 민영환(閔泳煥)의 별업을 방문한 후 황윤명의 별서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그는 황윤명과 친교를 맺고 다시 황윤명의 별서를 찾았다. 한말 사대가의 한 사람인 강위(姜瑋)는 1870년대 육교시사(六橋詩社)를 통해 당대 명성을 드날렸다. 이들의 모임을 기록한 『육교연음집(六橋聯吟集)』에도 황윤명의 별서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당시 강위는 황춘파(황윤명)의 시옥(詩屋)에서 문형당(文衡堂: 문유용), 김추당(金秋堂: 김창순), 이취당(李取堂: 이원공), 이소화(李小華: 이시영), 주소창(朱小滄: 주우남)과 만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 있다.¹ 황윤명이 당대 수많은 문인들과 교류한 흔적이다.

이렇게 보면 황윤명은 조선 후기 성북동의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혀도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글을 썼지만, 그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도 많다. 2019년, 성북문화원이 황윤명에게 주목한 이유이다.

1 이 부분은 김세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06-12, 「[기고] 명승 제35호 성락원 연원의 재검토」 『환경과 조경』에서 발췌.

2019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2

8년간의 심표,
번암 채제공의
명덕동 별업



글_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장위동 속 옛 마을, 명덕동

아랫말, 웃말, 간대말, 활랑리, 명덕동.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장위동에 있었던 작은 마을들의 이름이다. 지금은 건물과 도로로 가득 찬 곳이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장위동은 여기 저기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패산과 장위산에서 뻗어내린 나지막한 산줄기. 그 사이를 흘러내린 물이 작은 시내들을 이루어 우이천으로 흘러드는 곳. 물가 양쪽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사이사이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도시개발로 장위동의 지형이 많이 바뀌어 옛 마을들의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옛 지도와 문헌들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위치는 가늠해볼 수 있다. 활랑리(한량리라고도 불렀다)는 지금의 돌곶이역 부근이다. 명덕동(명덕굴, 명덕골이라고도 불렀다)은 지금의 장위초등학교와 북서울꿈의숲 사이 중간쯤에 있던 마을이다. 아랫말은 옛 장석시장 부근이라고 하니까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장위4구역 일대가 된다. 따라서 간대말(간대는 가운데라는 뜻이다)과 웃말은 아랫말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간 곳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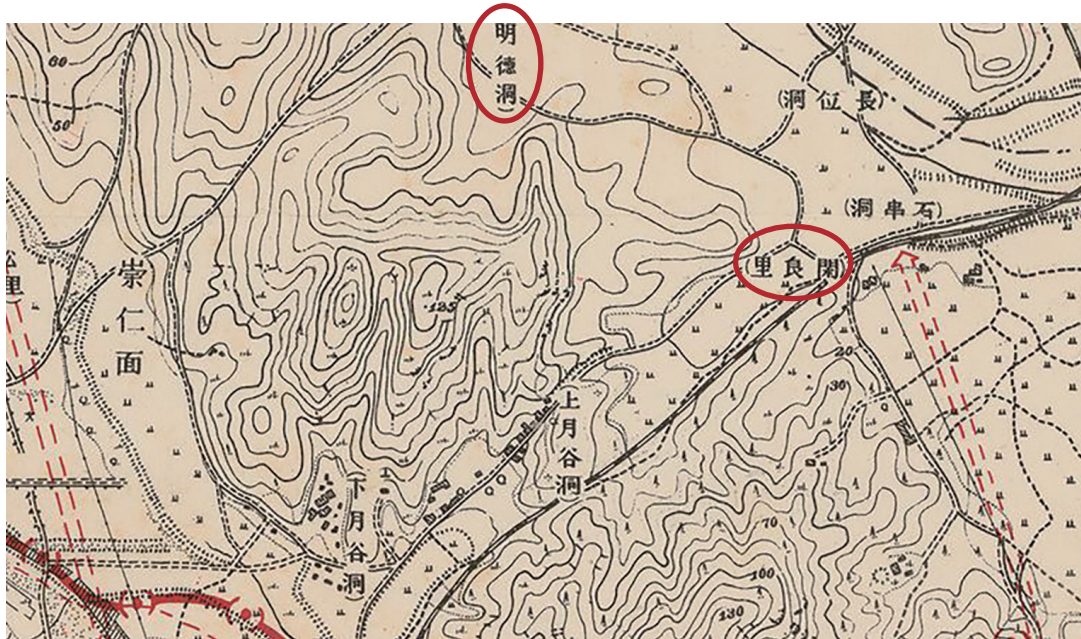
이 가운데 명덕동은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별업(別業)이 있던 마을이다. 별업은 요즘 말로 하면 별장이다. 별서(別墅)라고도 불렀는데 옛날 지위 높고 재력 많은 양반들이 본가와 외에 근교에 따로 토지를 사서 정원을 갖추어 만든 휴양 목적의 주거 시설이다. 조선시대 명덕동 일대는 뒤로 산을 두르고 앞으로는 맑은 시내와 들판을 마주한 아늑한 지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별업을 조성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느 사이엔가 명덕동과 함께 별업도 사라지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채제공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남긴 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 편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옛 명덕동 별업과 그 주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명덕동 별업의 주인, 변암 채제공

명덕동 별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별업의 주인 변암 채제공은 누구였는지, 왜 그는 이곳에 별업을 조성했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채제공은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영조와 정조 연간에 활동했던 유능한 관료이자,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이었다. 홍성에서 태어난 그는 1743년(영조 19년)에 문과 급제를 한 뒤 영조의 신임을 받아 두루 요직을 맡으며 활동했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에는 세손우빈객(世孫右賓客)이 되어 세손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했고 영조 말엽에는 벼슬이 병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정조의 채제공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각별했다. 정조는 자신의 옛 스승일 뿐 아니라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도 출중하며 언제나 직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를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정조가 즉위 후 당시 원로 반열에 든 채제공을 굳이 규장각 제학에 임명했던 것은 항상 그를 옆에 두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관료와 신하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채제공이었지만 평생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당색(黨色)이었다. 채제공은 남인(南人)에 속했다. 남인은 숙종 대 갑신한국 이후 조정 내에서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5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명덕동(明德洞), 한량리(閑良里)가 보인다.

『최신서울특별시전도』(1966).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966년까지만 해도 명덕동이란 지명이 남아 있었다.



입지를 잃었고 1728년(영조 4년) 이인좌의 난 이후에는 관료 진출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인 출신 채제공만이 조정에서 버티고 있었다. 조정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거나 보호해 줄 선배들은 전무했다. 노론 관료들은 채제공의 빈틈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779년(정조 3년) 음력 9월,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는 세도가 홍국영이 실각함에 따라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노론 세력은 이때를 놓칠세라 채제공의 파직을 임금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채제공의 역할이 커질수록 남인 세력의 부상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정조의 신임은 확고했지만 반대파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다. 후퇴 겸 휴식이 필요했다. 그해 초겨울 채제공은 관직에서 물러나 동대문 밖 명덕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강 건너 노량진 별업이나 홍성의 본가로도 갈 수 있었지만 도성과 가까운 명덕동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언제라도 임금에게 변고가 생기면 쫓아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일선에서 아주 떠나버린 것이 아닌 미래를 기약한 전략적 후퇴였다. 아마 그를 신임했던 정조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명덕동 별업에서 보낸 8년

명덕동에서 채제공이 보낸 시간은 무려 8년이다. 이 시절 그는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벗들을 자주 불러 산수를 유람하기도 하며 별업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가끔 도성 안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문장에 능했던 그는 이곳에서 여러 편의 한시와 산문을 썼다. 그의 문집 『변암집(樊巖集)』 제15권에 실려 있는 70여 편의 한시와 같은 책 제34권에 실려 있는 6편의 산문들이 바로 그때 쓴 작품들이다.

명덕동에서 쓴 작품들은 그가 머문 장소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이 중 6편의 산문은 모두 기문(記文)으로 이를 통해 별업 내부의 건물, 나무, 바위, 폭포 등의 배치는 물론 각 장소의 유래와 거기에 담긴 뜻을 알 수 있다.

「연명헌기(戀明軒記)」에는 별업의 중심건물 ‘연명헌’의 뜻을 풀어 놓았다. 곧 ‘빈궁하든지 영달하든지 간에 밝은 군주를 사모하여 멀리가지 못하고 근교에서 농사짓고 누에친다.’는 뜻으로 차마 임금을 멀리 떠나지 못하며 노심초사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옥대기(漱玉臺記)」에는 명덕동 별업의 유래가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 별업은 삼척부사를 지낸 옥호(玉壺) 정하연(鄭夏彦, 1702~1769)의 소유였다. 채제공은 1751년(영조 27년)부터 1753년(영조 29년)까지 1년 넘게 강원도 삼척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정하연이 당시 삼척부사로 있었으므로 의기가 통했던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채제공의 평에 따르면 정하연은 권력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문장에 능하고 술을 잘하며 바른 말을 하는 데 거리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1769년(영조 45년) 정하연이 죽자 그 아들들이 가난하여 명덕동 별업을 팔았고 그 뒤 세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채제공이 도성을 떠나오면서 사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절벽 아래 붉은 먹으로 ‘수옥대(漱玉臺)’라고 새긴 글씨는 다름 아닌 정하연의 필체로 채제공은 글씨를 어루만질 때면 고인의

마음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별업 바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명덕동기(明德洞記)」를 읽어 보자.

난가대(爛柯臺)를 지나서 경사진 벼랑을 따라 석벽 곁으로 칙을 잡고 가면 얼마 안 가서 명덕동에 닿는다.

동(洞)이 깊어서 때로 나무꾼이 오기는 하나 드물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동북의 구석에 이르러서는 그 정상이 그다지 치솟지 않은 것이 마치 커다란 고리에 약간 이지러진 곳이 있는 것 같다. 이 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를 경유한다.

수락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그 이지러진 곳에 뽕죽뽕죽 상투처럼 솟아 있다. 연기 어린 나무들과 아득히 먼 산안개를 손으로 가리켜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각심암(覺心庵)이다.

동의 형체와 지세는 깊숙하고 넓고 비었다. 가운데에 밭 약간 묘(畝)가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소나무·전나무들이다. 어지럽게 뒤섞이어 푸르름을 이루었는데 물은 빨리 흘러 벼랑을 따라 달아난다. 소나무 그늘 있는 곳까지 못 미쳐서 금잔디가 땅을 따라 부드럽고 연하여 앉아도 좋고, 누위도 좋다.

나는 병이 없을 때면 막대를 끌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돌아다닌다. 그래도 피로하지 않다.

매년 3월, 9월의 계절을 만나면 바람이 차고 날씨가 따뜻한 때를 가려서 집안사람과 부녀들을 인솔하고 솔과 노구를 싣고 가서, 언덕의 들에 의거하여 혹은 바위의 꽃을 따기도 하고, 혹은 계단의 국화를 따서 떡을 굽는다. 혹은 쭈욱 꿇어서 점심에 곁들여 먹기도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보내면서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허연(許掾)의 전가(全家)의 도기(道氣)와 방덕공(龐德公)의 온 집안이 은둔(隱遯)한 고사를 가져다가 이것과 비교하면 그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허연과 방덕공은 옛 중국의 은자이다.)

생각하건대 내가 소년 시절에 홍주(洪州, 지금의 홍성)의 시골집에 있을 때, 영절(令節)을 만나면 나는 부모를 모시고 여러 누이들을 이끌고 고산(孤山)의 식암(息庵) 깊은 곳에 놀러 가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 일이 모두 몇 번이던가. 잠깐 사이에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의 즐겁던 일은 다시 얻을 수 없고 외롭게 세상에 남아 있는 이는 오직 노쇠하고 병든 나와 늙은 누이 한 사람뿐이다. 또 누이는 집이 시골이고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 모임을 같이할 수가 없다. 어찌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시물을 보고 느낌이 없을 수 없겠는가. 비록 그리하나 안식구들이 눈치 채면 즐거운 취미를 감손(減損)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속에만 감춰 두고 면전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 「명덕동기(明德洞記)」전문

(국역 출처 : 남만성 역, 『한국사상대전집33 : 변암집』, 양우당, 1988)



창경궁 홍화문(弘化門). 1744년(영조 20년) 정하언이 왕명을 받고 이 문의 편액을 썼다. 정하언은 1735년(영조 1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744년(영조 20년) 조정에서 『속대전(續大典)』을 친수할 때 왕의 특명으로 법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삼척부사 재임시 귀양 온 채제공과 어울렸고 서울 명덕동에 땅을 구입하여 별업을 조성하였다. 저서로는 『지당집(止堂集)』이 있다.

별업을 둘러싼 명덕동 일대의 풍경이 손에 잡힐 듯하다. 글에 따르면 채제공은 명덕동 일대를 자주 거닐었고, 봄가을 좋은 날씨를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바위나 물가를 찾아 야유회를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고회를 앞둔 나이인지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소년 시절 홍성에서 보낸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자주 떠올리는 그였다. 조정에서 40년 넘게 온갖 풍상을 겪은 그도 마음 한 구석에 유년의 추억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1786년 9월, 채제공은 평안병사로 부름을 받고 명덕동을 떠났다. 1788년 2월, 다시 정조는 직접 어필로 그를 우의정에 임명하는 교지를 내렸다. 69세 노정객의 화려한 재등장이었다. 조정에 다시 돌아온 채제공은 지난날 명덕동에 머무르면서 고민을 거듭했던 것들을 정리해 <6조 진언(進言)>을 만들어 올렸다. 조선이 부강해지고 청나라에 대적할 만한 힘을 키우려면 먼저 바른 치국(治國)의 도리를 세우고,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당론을 없애야 하며, 의리를 밝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하며, 권력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조는 채제공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뒤 정조는 그를 좌의정으로 임명했는데 당시 우의정과 영의정이 공석이였으므로

채제공은 약 3년 동안 독상(獨相)으로 있으면서 국정을 총괄했다. 정조 연간 후반기에 추진한 굵직한 개혁 정책, 예를 들면 금난전권 폐지, 정약용·이가환·박제가·이덕무 등 실학자 중용, 수원 화성 건설 등은 모두 정조와 채제공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돌아보면 채제공에게 8년간의 명덕동 생활은 의미심장한 씬표였다. 겉으로만 보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조정을 떠나 숨어버린 것이지만 그는 이 시간을 반전과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 명덕동 별업은 그가 도성 안에서 펼쳐지는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치밀하게 모색한 공간이었다.

지금 그의 별업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의 별업을 둘러쥔 산과 언덕을 장위동에서 볼 수 있다. 가까운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그가 거닐었던 물가의 흔적들도 일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남긴 생생한 시와 산문이 우리 곁에 있다. 비록 한문이지만 머지않아 이 모두를 번역된 글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옛날 명덕동 별업의 밝고 그윽한 정취가 다시 피어오를지 모르겠다.



장위1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장위동 풍경(2015). 멀리 불암산이 보인다.



우연에 우연이 겹쳐 빛어진 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다

성북문화원 일반회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 : 충남 논산

글_ 이재민(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버스에서 내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논산의 신선한 공기가 몸 속을 가득 채웠다. 완전한 봄기운을 만끽하며 여유롭고 느그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없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우비를 대충 걸치고 동선을 살펴보면서 관측사 일주문까지 내달렸다. 적당한 위치를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 뒤야야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쯤 젖은 신발, 흠이 튼 바지, 어디까지 돌아가 있는지 모를 스피커, 뿌연 안경, 헝클어진 머리. 그제야 불현 듯 스친 생각. 아, 여긴 논산이었지. 주변에 온통 논과 산밖에 없다고 해서 논산이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지도 9년 정도가 지났건만, 아직도 이 도시는 쉽게 적응이 되지 않는다. 역시 논산과 나는 맞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20대 초반의 추억(?)을 잠시 떠올려볼까 했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다. 어느새 탐방에 참여하신 회원들이 내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앞에 모여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2019년 상반기 탐방이 시작되었다.

지금껏 수많은 답사를 갔다 왔지만 여전히 꺼려지는 것은 바로 낯선 날씨이다. 사실 비오는 날의 답사는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기는 하다. 운무 사이로 살며시 보이는 풍경은 돈을 주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화사한 햇살을 받으며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만큼 유쾌한 것도 없다. 이제 슬슬 탐방지에 대한 소감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 날씨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본 탐방을 위해 2~3주 전에 다녀온 사전탐방은 포근한 날씨 덕분에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정작 당일 이렇게 비가 내릴 줄이야. 하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이기에, 오늘의 탐방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며 관촉사의 불상으로 향했다.

‘은진미륵’이라고도 알려진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보면 볼수록 정이 간다. 지금까지 두 번의 답사를 통해 봐왔지만, 세 번째 보는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일반 탐방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탐방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아서 그런지, 불상의 미소가 온화하게만 느껴졌다. 불상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불상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폭우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비가 내려 흠바닥은 이미 물줄기가 생겼다. 발걸음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방에 오신 회원분들은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으셨다. 이런 날씨도 나름의 운치가 있다면서,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확실히 달랐다. 맑은 날씨에는 또렷이 보였던 불상 뒤편 나무들이 비 때문에 만들어진 안개에 가려 흐릿하게 보이니 이런 절경이 또 없었다. 한 폭의 수묵화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탐방의 맛을 하나 더 알게 된 느낌이었다.

점심 식사 이후 방문한 곳은 계백 장군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곳에 세워진 백제군사박물관이었다. 여기는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었다. 사전 탐방 때에는 당일 동선을 예상하면서 황산벌 전투에 대해 한바탕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간신히 자리를 잡아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끝내야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곳 만큼은 날이 맑았으면 했다. 전시실 내의 유물 대부분이 모조품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 진품을 보고 오신 분들이 실망하시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 관람할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았기에 계백 장군 묘소와 사당을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한다는 기분을 탐방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었다. 생각해 보면 운무가 깔린 이 별관에서 그렇게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니 영화 <황산벌>에도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늘에서 추적추적 비가 내렸더랬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백 장군이 싸웠던 당시 비 한 방울 안 내렸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어쩌면 1,400여 년 전 그때의 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조선 예학(禮學)의 산실, 돈암서원이었다. 비 내리는 서원을 걷고 있자니 정말로 선비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마도 입덕문(入德門)을 지나오면서 아, 드디어 덕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안도감 덕분이었던 듯싶다. 사실 서원 탐방은 지루하게만 보일 수 있다. 서원 자체가 화려함과 거리가 멀고, 온통 한자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설령 한자를 읽는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원의 한자는 하나도 빠짐 없이 경서(經書)에서 가져온 말이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다행히도 개인적으로 한문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낯설지는 않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입덕(入德)이라든지, 거경(居敬)이라든지 하는 것들. 자세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지만,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직접 그 뜻을 찾아서 음미해보시기를 추천한다.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학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

마음 한 구석이 꼭 차는 그러한 뿌듯함을 가득 안고 마지막 코스인 명재고택으로 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곳은 비가 와서 좋았다. 정확히는 비가 와서 이곳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 맑은 날에는 느낄 수 없는 전통 한옥의 고즈넉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고택을 바라보는 회원 분들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연신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옥의 선이었다. 비가 오며 생긴 안개가 한옥의 선을 살짝 가려주고, 비가 그친 뒤 특유의 맑음 덕분에 주변 나뭇잎은 더욱 뚜렷해졌다. 바닥은 흙먼지가 날리지 않아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리만 퍼지고, 연못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 소리는 더욱 청량했다. 명재고택 자체도 정말 좋았지만, 이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이 더욱 좋았다. 그것도 오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비 덕분에.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



명재고택

니었다. 탐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비오는 날의 명재고택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 그렇게 좋은 기억이 한 장의 추억으로 쌓이며 탐방이 끝났다.

이번 탐방의 모든 과정은 정말 우연히 일어났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비가 온 것 자체도 우연이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해 멋진 경치들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니 필연이 된 것일까. 비오는 날의 탐방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보니 점심 식사 장소도 우연히 정해졌다. 사전탐방 때 들린 관촉사 종무소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덕분에 점심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탐방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물론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묘미로 느낄 수도 있다. 오전의 분주했던 마음이 오후에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상치 못한 일 때문이었다. 시선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일상에 활력소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 이렇게 탐방을 통해 무언가를 또 하나 배워간다. 다음 탐방이 기다려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가까이에서 즐기는 가을의 흥취

성북문화원 일반회원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 경기도 양주

글_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단풍은 이제 막 곱게 물들기 시작하고, 구름이 해를 살짝 가려주어 따가운 가을 햇살을 피해 나들이 가기에 더없이 좋았다. 사실 양주와 같이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서울 근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여행지를 고를 땐 오히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 같다. 이처럼 평소에 선뜻 가지 않는 곳을 가보는 것이 탐방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회암사지 박물관 앞에서



회암사지를 가로질러

첫 탐방지인 회암사지와 박물관. 우리는 박물관과 조금 떨어져 있는 회암사지를 둘러보기에 앞서 회암사지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회암사의 역사와 발굴품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다.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조선시대 왕실사찰이었던 회암사의 규모와 위상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다. 영상과 함께 현재 회암사지의 모습과 과거 회암사 모습을 구현한 모형이 움직이며 오랫동안 회원님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다. 이밖에도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청기와와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어 왕실사찰이었던 회암사의 위용을 짐작케 한다.

박물관을 한 바퀴 둘러보았으니 이제 회암사지를 직접 만나볼 차례다. 박물관과 회암사지를 잇는 공원을 5분 남짓 걸었을까. 드디어 만여 평에 달하는 회암사지에 도착하였다. 눈 앞에 펼쳐진 너른 절터는 20여 년간 대규모 발굴작업이 이루어진 이유를 절로 알게 해 준다. 주춧돌만 남은 절터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꼭대기에 위치한 부도탑에 도착하니 우리가 지나왔던 절터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려한 시절은 세월에 씻겨내려 터만 남은 회암사와 저 멀리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이 인상적이었다.



부도탑 앞에서



회암사지를 배경으로



양주향교에서



왕년의 솜씨를 발휘해볼까

첫 탐방지에서 무사히 관람을 마치고 두 번째 탐방지로 가는 버스 안.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긴장에 가슴이 쿵닥거린다. 두 번째 탐방지인 양주향교와 관아지의 해설을 맡았기 때문이다. 어제저녁 적어둔 해설할 내용을 보며 연습해보지만 긴장이 쉽사리 가라앉질 않았다. 드디어 시작한 해설. 처음엔 차분히 시작했지만 점점 허는 꼬이고, 준비한 말들이 뒤죽박죽 섞여 결국 준비했던 만큼 하지 못하고 해설을 마쳤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부족한 설명에도 회원분들이 따뜻하게 호응해 주신 덕에 보람이 있었다.

관아지에서 회원님들에게 자유 관람 시간을 드리자 관아 마당 곳곳에 마련된 전통놀이에 폭 빠졌다. 처음엔 주눅거리며 마다하셨지만 한두 분이 물꼬를 트니 점차 열기가 달아올랐다. 굴렁쇠를 잘 굴러보겠다고 뽕박질을 하고, 에어 로켓을 더 멀리 날려보겠다고 있는 힘껏 발사판을 밟으시는 회원님들 얼굴에는 소년, 소녀같은 미소가 가득하다. 아마도 이번 탐방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아닐까 싶다.

점심으로 배를 두둑이 채우고 도착한 세 번째 탐방지는 우리 성북구와도 관련이 깊은 조소앙 기념관이였다. 조소앙은 성북구에 살았던 독립운동가이자 성북구 2대 국회의원으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삼선교 버스정류장에 ‘조소앙 활동 터’라는 정류장명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전시관에도 ‘돈암동 445의 1(현재 동소문동 1-50)’이라는 주소가 적힌 등록표와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 ‘성북구 시민’을 언급한 글 등이 전시되어 있어 조소앙의 생애에서 성북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 더 확실히 와닿았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장욱진 미술관. 언덕 위에 하얀 카보네이트 패널로 외관을 마감한 미술관은 이리저리 꼬여 있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미술관 안 곳곳에는 생전에 장욱진이 했던 말들이 벽에 쓰여 있는데 “나는 심플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한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 그가 말한 ‘심플’이라는 단어 속에 소박함, 수수함, 순수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미술관 관람을 끝으로 깊어가는 가을날의 탐방은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 처음 가본 양주는 고



조소앙기념관으로 들어가며

즈넉한 문화재와 수려한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탐방에서 해설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여러모로 값진 경험이었다. 서툰 설명이었지만 탐방 이후 문화원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 말이다. 양주에서 즐긴 가을날의 하루가 나에게 의미있었던 만큼 탐방에 다녀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즐거웠던 기억만 남아있길 바래본다.

2019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2019년에도 생활예술을 실천하며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성북문화원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외부 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강좌를 통해 재능과 열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펼치는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대금·단소	김미영 외 4명	2019 서울문화가족 국악경연대회 장려상
	김희석	제1회 서울국악축제 소리자랑 실버부 우수상
사군자	안구선	2019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동상
	이 발	제1회 대한민국통일명인대전 특선
		제17회 대한민국서예문화대전 특선
		2019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은상
선소리산타령	오근창	제1회 서울국악축제 소리자랑 실버부 최우수상
수묵산수화	나창순	제19회 대한민국해동서화대전 특선
	류보영	제19회 대한민국해동서화대전 특선 명품
		제6회 정신풍경 미술대전 특선
시낭송가 양성과정	이순영	제19회 대한민국해동서화대전 특선
	김인영	제2회 『작가의 시학』詩클리오 전국 시낭송 대회 은상
	이미숙	제2회 『작가의 시학』詩클리오 전국 시낭송 대회 장려상
	이우룡	제2회 『작가의 시학』詩클리오 전국 시낭송 대회 장려상
	임숙연	제2회 『작가의 시학』詩클리오 전국 시낭송 대회 특별상
유화로그리는인물화	한정희	제2회 『작가의 시학』詩클리오 전국 시낭송 대회 은상
	김옥희	양태광당2019KOREA 피카디리미술대전 입선
한글서예	김진순	제17회 대한민국서예문화대전 입선
		제33회 대한민국서예·미술공모대전 특선(한글부문)
		제51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 한글서예 부문 입선
한문서예	박영옥	제4회 대한민국정암회호대전 한문서예 부문 우수상
		제7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차상(한문)
		제7회 전국 회현(안향)선생 회호대회 한문 부문 장려상
		제8회 미수문화제 서예대전 우수상
		제9회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 한문 부문 우수상
		「제10회 구암제」 구암전국회호대회 서예 부문 대상
		2019 구미인동 3·1문화제 제10회 전국회호대회 일반부 우수상
		제11회 전국 매창 회호대회 우수상
		제12회 대한민국죽농서화대전 한문서예 부문 특선
		제17회 대한민국서예한마당 회호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제69회 개천예술제 전국회호대회 우수상
		2019 대한민국한석봉전국회호대전 한문 부문 최우수상
	이 발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제20회 대한민국정수대전 서예·문인화 부문 입선

대회 및 수상 사진



서울문화가속 국악경연대회



서울문화가속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대금·단소 | 김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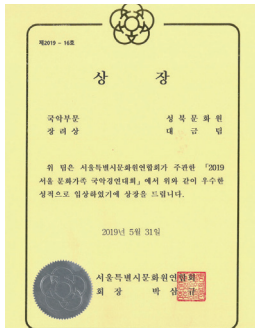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 | 오근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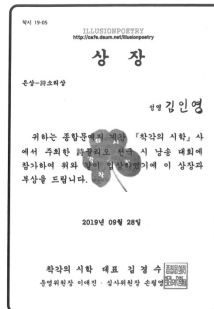
한글서예 | 김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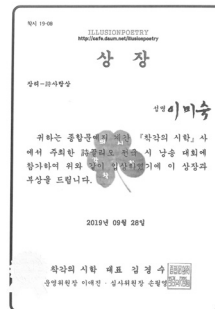
한문서예 | 박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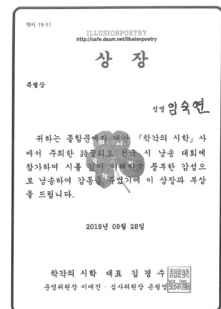
대금·단소 | 김미영 외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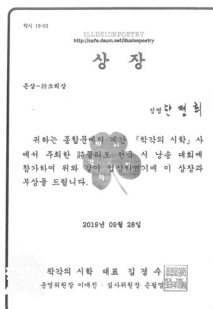
시낭송가양성과정 | 김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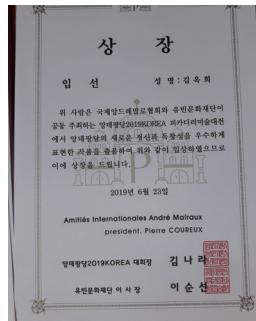
시낭송가양성과정 | 이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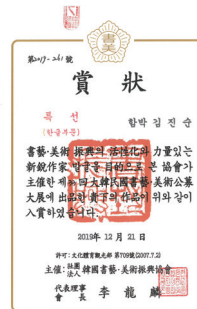
시낭송가양성과정 | 임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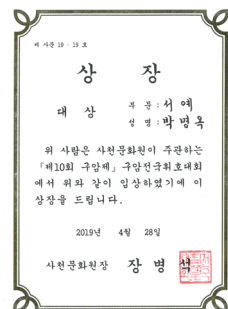
시낭송가양성과정 | 한정희



유화그리는인물화 | 김옥희



한글서예 | 김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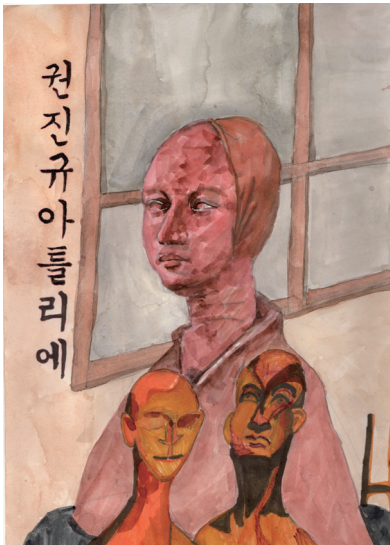
한문서예 | 박영옥

2019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2019년 가을 선선한 바람을 따라 성북천에 깃발이 남실거렸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북구'를 주제로 한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총 89점, '성북구 문인 김광섭, 신동엽'을 주제로 한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 총 105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총 140점이 깃발에 담겨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과 명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문인들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10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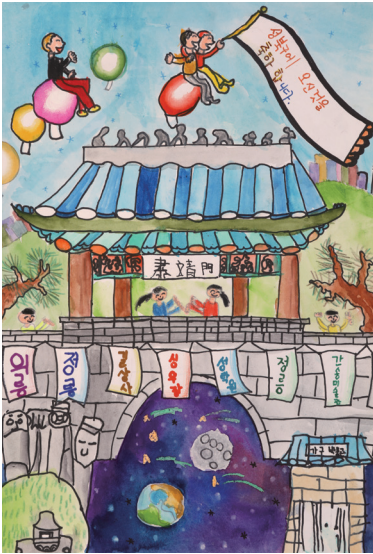
대상

윤성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 5)
〈권진규 아틀리에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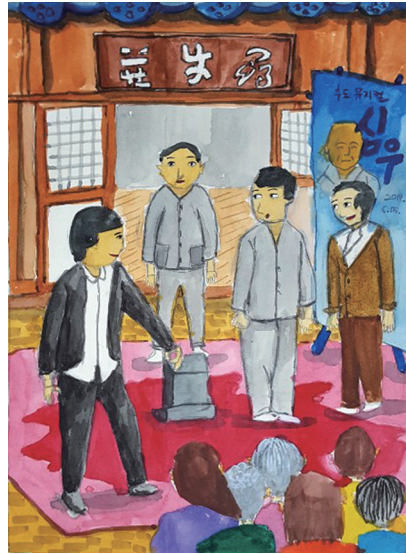


최우수상

이다연(돈암초 6)
〈길상사에서서의 즐거운 추억〉



최우수상
정병관(석계초 3)
〈풍등타고 성북구 여행해요〉



우수상
이상윤(삼선초 5)
〈심우장이 있어야 좋은 동네지〉



우수상
이지유(석계초 3)
〈별들이 소개해주는 우리동네 성북구〉



우수상
전주훈(석계초 4)
〈친구들이 성북은 말야...〉



가작
고은성(삼선초 3)
〈한용운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



가작
김태림(삼선초 5)
〈200년만에 부활한 성락원〉



가작
온지민(석계초 4)
〈해의친구들과 함께하는 성북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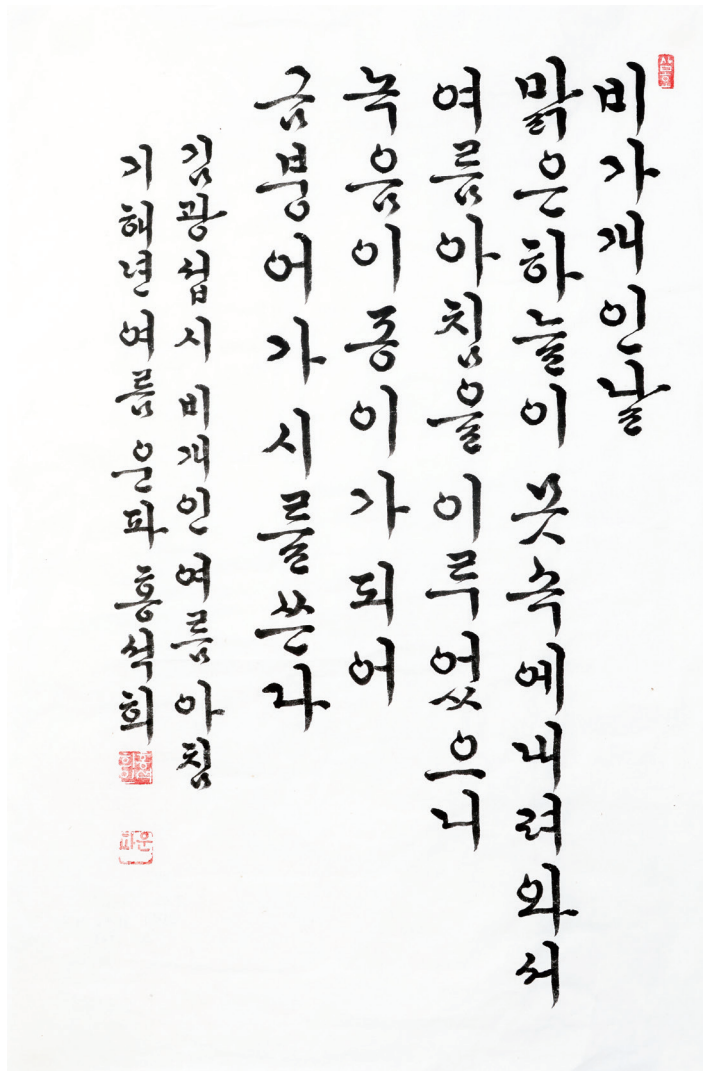


가작
전유주(석계초 2)
〈친구와 함께 걷는 성북꽃길〉

제10회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성북구 문인 김광섭, 신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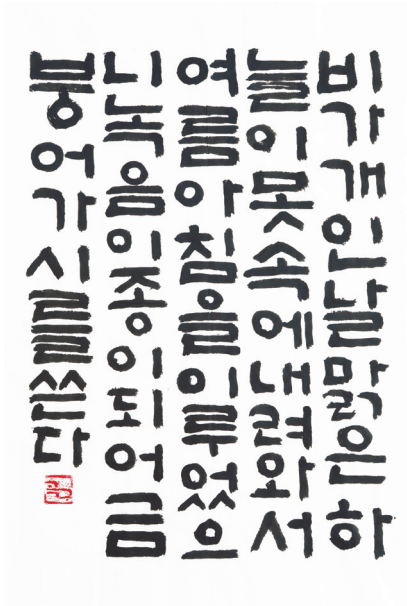
[한글서예 부문]



대상

홍석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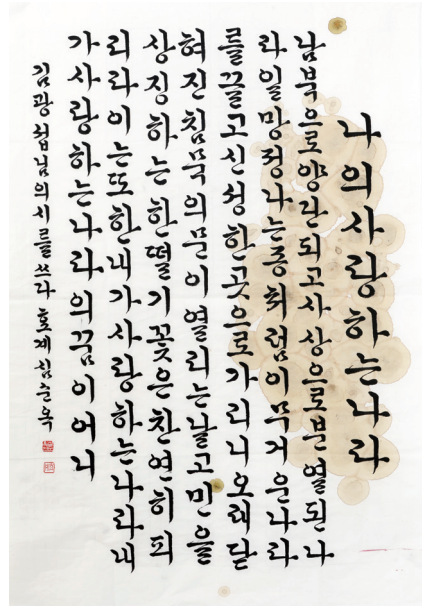
〈김광섭 - 비 개인 여름 아침〉



최우수상

김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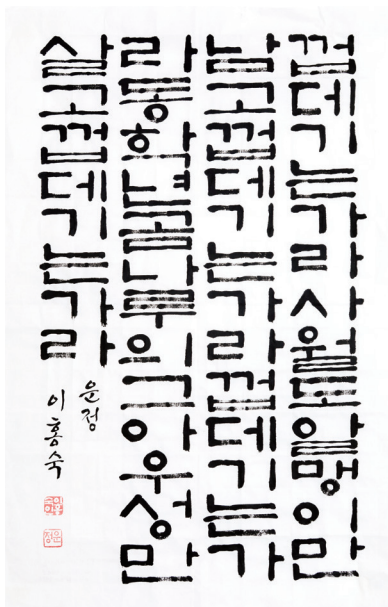
〈김광섭 - 비 개인 여름 아침〉



최우수상

심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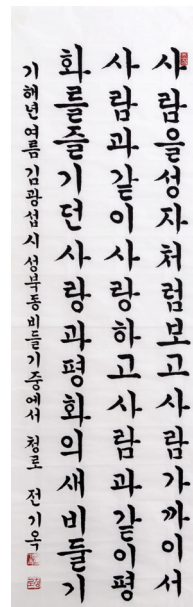
〈김광섭 - 나의 사랑하는 나라〉



우수상

이홍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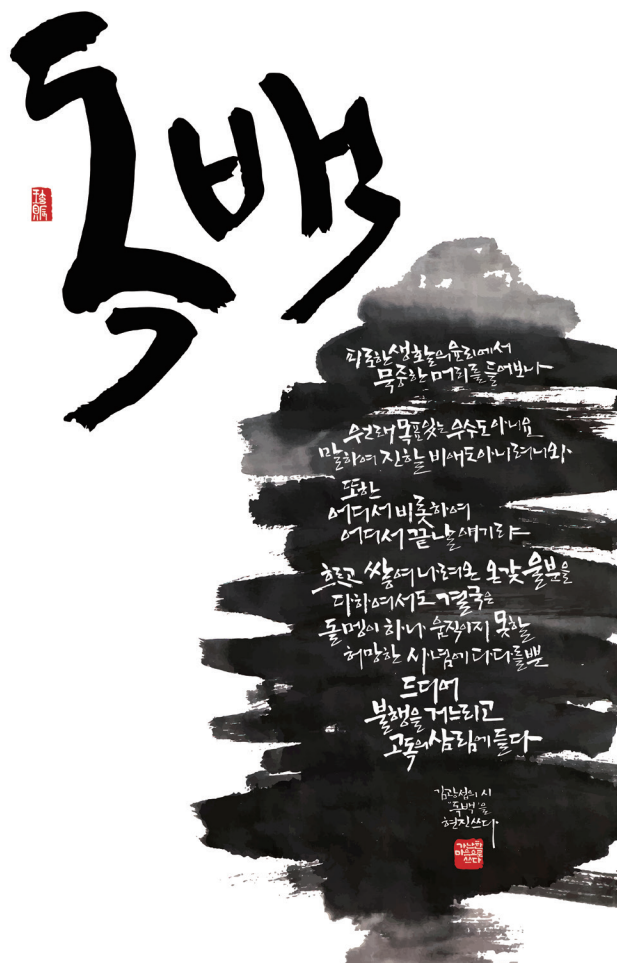
〈신동엽 - 껌떼기는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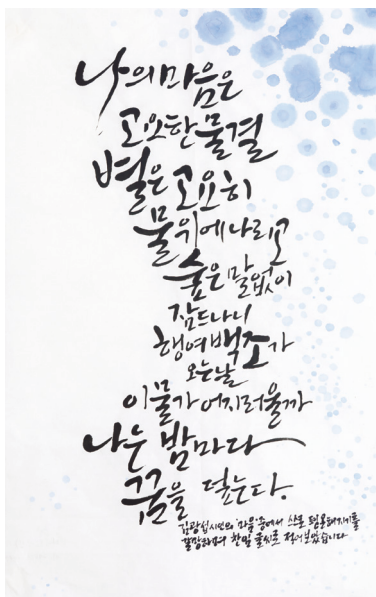
우수상

전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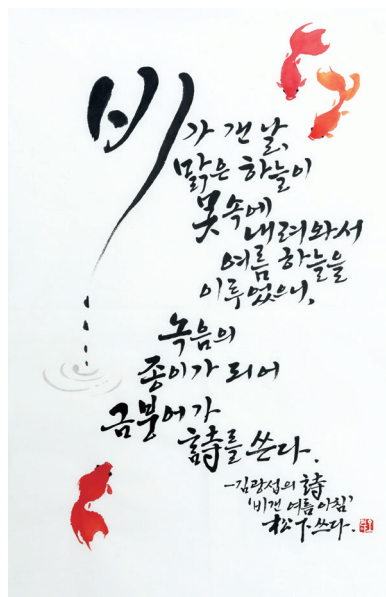
〈김광섭 - 성북동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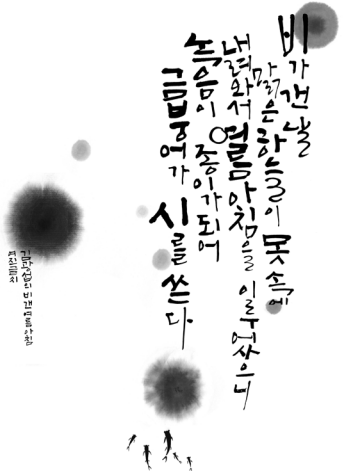
대상
최현진
〈김광섭 - 독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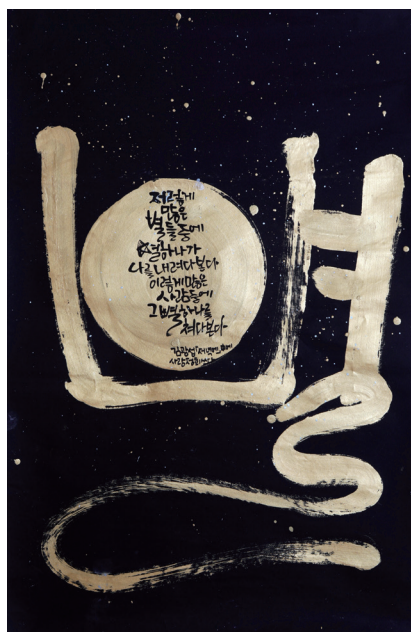
최우수상
김찬임
〈김광섭 - 마음〉



최우수상
오현아
〈김광섭 - 비 개인 여름 아침〉



우수상
노여진
〈김광섭 - 비 개인 여름 아침〉



우수상
황정희
〈김광섭 - 저녁에〉

사진으로 보는 2019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성북문화원은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지역문화와 구민 문화생활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2019년을 가득 채운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성북문화원과 함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길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성인 강좌(34개)

가야금병창, 규방공예, 경기민요,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단소,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민화, 사군자, 사진작가, 전소리산타령, 수묵산수화A, 수묵산수화B, 수채화&데생,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역사와 문화유산,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1), 원어민영어회화(중급2),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원어민중국어회화(중급), 웰빙실용풍수,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장구, 테라피요가, 팝송영어, 한국무용(초·중급), 한국무용(심화), 한글서예, 한문서예A, 한문서예B, 해금

어린이 강좌(11개)

두뇌개발 어린이주산, 어린이 놀이미술A, 어린이 놀이미술B,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어린이가야금병창, 어린이해금, 유아발레 Level1, 유아발레 Level2, 창의사고 보드게임



경기민요



대금·단소



문예창작실기



민화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원어민영어회화(초급/중급1/중급2/고급)



한국무용(초·중급/심화)



한문서예 A·B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중급)



웰빙실용풍수



어린이 가야금병창



두뇌개발 어린이주산



향토문화 계승 및 문화탐방 사업



상반기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2019.04.25. 논산)



하반기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2019.10.23. 양주)



2019 성북문화 아카데미(2019.05.02.~03. / 05.16.~17. / 10.24.~25.)



상반기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
(2019.05.31.~07.19. 성북구평생학습관)



하반기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
(2019.11.13.~12.18. 성북구평생학습관)



2019 성북구 주민 아카데미 | 성북을 펼치면 한국현대사가 보인다 (2019.11.05.~21. 성북문화원, 성북구 및 종로구 일대)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여성독립운동가열전①
(2019.02.09.~10. 동양예술극장)



여성독립운동가열전②
(2019.11.01.~03. 충무아트센터)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연회 | 꿈은 소리는 꿈은 소리를 부른다(2019.03.05.~04.09. 성북문화원, 성북예술창작터)



201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 희희낙락 (2019.04.12.~11.01. 성북문화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순복음교회)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2019.05.18. 성북천 분수마루)



캠퍼스타운축제 | 삼선유람
(2019.05.31.~06.05. 삼선동 일대)



캠퍼스타운축제 | 끌어안암
(2019.09.28. 안암동 참살이길 일대)



창작뮤지컬 《심우》(2019.06.15.~29. 성북동심우장)



만해 한용운 선사 75주기 추모 다례제 (2019.06.29. 성북동 심우장)



2019 문화가 있는 날 | 성북의 삶을 담다, 성북별곡(2019.06.29. / 08.28. / 08.31. 성북동 심우장 / 성북동 거리 / 성북천 분수마루)



2019 성북문화원 어울마당-전시마당 | 일상, 예술에 달다
(2019.08.27.~09.05. 성북예술창작터, 영갤러리)



2019 성북문화원 어울마당-공연마당 | 일상, 예술에 달다
(2019.08.31. 성북천 분수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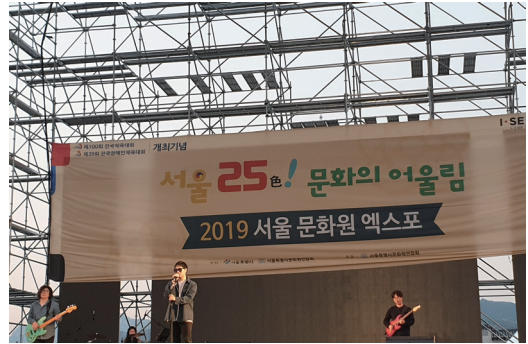


2019 성북천 깃발전(2019.09.02.~30. 성북천 일대)



2019 성북동 문화재 야행 | 성 밖 마을 사람들(2019.09.20.~22. 성북동 일대)





2019 제5회 서울문화원엑스포(2019.09.25, 광화문광장)



2019 성북학 학술회의 | 조선시대 성북지역의 공간·삶·문화(2019.10.05, 성북문화원)



2019 성북문학주간 | 김광섭·신동엽(2019.10.15.~29, 성북문화원)



경연대회



2019 서울문화가족 국악경연대회(2019.05.31. 용산아트홀)



2019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2019.09.06. 중구구민회관)



기타



2019 윤생동성북건축포럼 (2019.05.29.~10.16. 성북문화원)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대중강연 | 역사 속 국제관계와 분쟁
(2019.11.26.~12.19. 성북문화원)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n 내일신문

[신년기획 | 100년 전 그날, 현장을 가다-서울 성북구] 독립운동가 가족을 품은 마을 정릉동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 말년 보내 ...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8명 신규추서

2019-01-23 11:01:18 게재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내 신덕왕후의 무덤 정릉으로 더 알려진 정릉동은 걸출한 독립운동가 가족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여사와 유관순의 오빠 백노 유우석이다. 둘과 함께 역시 정릉에 살았던 이규창 선생과 조화벽 지사도 세간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아나키스트의 아내 = 성북구 정릉2동 226-33번지. 평범한 빌라 4층에는 사업가 이종철씨가 결코 평범할 수 없었던 할머니와 아버지 기억을 안고 산다.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1889~1979) 여사와 둘의 장남 이규창(1913~2005) 선생이다.



이회영



이은숙



이규창



유우석



조화벽

조선이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한 뒤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 신홍강습소(신홍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과 달리 22살 차이가 나는 아내는 오랫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여사는 열아홉이던 1908년 만 19세 나이로 우당과 결혼한다. 결혼 2년만에 명문가인 남편 집안은 전 재산을 처분해 낯선 땅으로 떠났고 그는 남편에 앞서 혼자 갓 낳은 딸을 안고 만주로 출발했다. 이국에서의 삶은 팍팍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마적의 총에 맞고 가난에 쪼들리다 자식과 손녀를 병마에 앞세우기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배웅도 못했고 1년 뒤 제사에 참석하는 길에는 임신 중에 4살짜리 딸과 함께 움직이면서 신발 밑창에 비밀서류를 숨겼다 발각당해 일본 경찰에 압송되기도 했다.

《내일신문》, 2019.01.23. 기사 발췌

‘정정화·이은숙·조화벽의 삶’ 무용극으로 복원

9·10일 ‘여성독립운동가열전’ 첫 공연



무용극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포스터.

3·1혁명 100周年을 기념하는 충북합무용극 <여성독립운동가열전>이 9·10일 이틀간 3회에 걸쳐 동영예술극장에서 첫 막을 올린다.

1980년대부터 성찰문화운동을 해온 이기연(질경이 우리웃 대표)씨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무용·연극·다큐를 결합시킨 독특한 형식으로 재조명한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총커우 공원 거사 이후부터 45년 광복 이후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까지를 배경으로 상하이일시정부 안살림을 맡았던 정정화, 서간도 신홍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강원도 양양 3·1운동의 불씨를 지핀 조화벽의 활약상을 한국적인 음악과 몸짓, 영상과 사진 등 사료를 토대로 입체적으로 그린다.

《한겨레》, 2019.02.0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1.23	내일신문	독립운동가 가족을 품은 마을 정릉동
2	02.01	뉴스컬처	성북문화원, 무용극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무료 공연 개최
3	02.01	아주경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공연③ '여성독립운동가열전', 무용극 통해 정정화·이은숙·조화벽 조명
4	02.03	테일리한국	3·1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무용극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5	02.06	한겨레	'정정화·이은숙·조화벽의 삶' 무용극으로 복원
6	02.07	문화뉴스	대한독립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열린다

사람&

첫 주자에 하루 수십 통 전화 쇄도... 독립선언서 필사 이어달리기 '응원'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기획한 성북문화원 3인과 첫 주자 이광중 광복회 성북구지회장

등록 : 2019-03-14 16:13 수정 : 2019-03-15 09:56

성북구청 박수진 계장 아이디어

3인 "절묘한 타이밍"

이광중 광복회 지회장 첫 주자로 나서

"범국민운동 된 것 같아 기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가 화제다. 이번 캠페인의 첫 주자인 이광중 광복회 성북구 지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캠페인을 기획한 성북문화원의 (왼쪽부터) 백외준 성북학연구팀장, 강성봉 사무국장, 박수진 운영과장이 7일 오후 성북문화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베껴 쓰고 있다.

《한겨레》, 2019.03.14.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7	02.07	뉴스1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초연...정정화·이은숙·조화벽 조명
8	02.07	매일경제	'여성독립운동가열전' 9~10일 동양예술극장서
9	02.07	연합뉴스	융복합 무용극으로 만나는 여성독립운동가 3인
10	03.14	한겨레	첫 주자에 하루 수십 통 전화 쇄도... 독립선언서 필사 이어달리기 '응원'
11	03.04	내 손안에 서울	100년 전 그 날처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문화일보 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

‘청포도’ 이육사 탄생 115주년 문화제

김도연기자 kdvchi@munhwa.com

18일 성북천 분수마루서 개최

서울 성북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8일 오후 7시,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열린다. 행사 주제는 1936년 이육사가 발표한 시의 제목에서 따왔다. 이육사(1904~1944)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시인이자, 조국을 되찾기 위해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항일독립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독립운동가이다.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37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 명륜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1939년부터 3년간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며 ‘청포도’ 등 대표작을 발표했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육사 시인 탄생 기념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항일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고 이를 책으로 엮어낸 바 있는 김태빈 작가가 ‘걸는 이가 많으면 그곳이 곧 길이 된다’라는 주제로 이육사의 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이육사의 유일한 혈육인 이옥비 이육사추모사업회 상임이사가 ‘아버지 이육사와 그의 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문화제의 마지막 순서로는 역사와 시를 노래하는 밴드 빈티지프랭키의 ‘W에대한사람’이라는 제목의 시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문화일보》, 2019.05.1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2	05.15	뉴스페이퍼	성북문화원,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개최
13	05.15	일요서울	‘청포도’ 탄생한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14	05.15	신아일보	‘청포도’ 탄생한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15	05.15	서울경제	성북구 ‘청포도’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16	05.16	문화일보	‘청포도’ 이육사 탄생 115주년 문화제
17	05.17	서울pn	성북, 이육사 탄생 115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18	05.17	BBS뉴스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5주년 문화제…내일 저녁 성북천 분수마루

한성대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 개최

[중앙일보] 입력 2019.06.03 11:10



한성대,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 개막식(왼쪽에서 7번째 유승희 국회의원_8번째 이승로 성북구청장_9번째 이상한 총장)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5월 31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성대와 성북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사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콘텐츠가 활용된 예술작품과 창업제품 등이 소개된다.

《중앙일보》, 2019.06.03. 기사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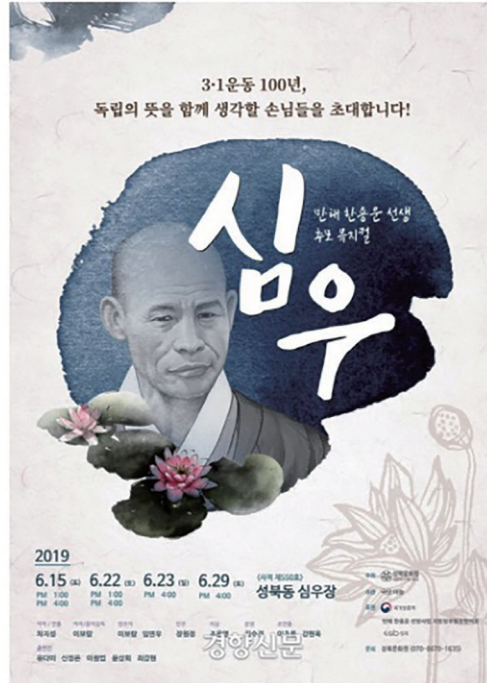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9	05.29	신아일보	한성대,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 개최
20	06.01	코리아안파리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승려인 독립투사
21	06.03	중앙일보	한성대 지역문화예술축제 삼선유람 개최

경향신문

[서울25]한용운 '심우장'서 뮤지컬 '심우' 감상하세요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입력 : 2019.06.13 16:53 | 수정 : 2019.06.13 16:54



서울 성북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입적 75주기를 기념해 창작뮤지컬 <심우>를 공연한다고 13일 밝혔다.

뮤지컬은 만해의 유택 성북동 심우장에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6회에 걸쳐 무료 공연한다.

《경향신문》, 2019.06.13, 기사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2	06.13	헤럴드경제	뮤지컬로 만나는 '심우(尋牛)'
23	06.13	시민일보	성북구, 한용운의 삶 그린 뮤지컬 '심우' 공연
24	06.13	아시아경제	한용운 선생 심우장에서 뮤지컬 '심우' 무료 공연
25	06.13	경향신문	한용운 '심우장'서 뮤지컬 '심우' 감상하세요
26	06.13	헤럴드경제	뮤지컬로 만나는 '심우(尋牛)'
27	06.14	더프리뷰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서 창작뮤지컬 '심우' 공연

[성북구] '만해 한용운 제75주기 추모다례제' 29일 개최



《D'LIVE뉴스》, 2019.06.26. 방송 화면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8	06.26	D'LIVE뉴스	'만해 한용운 제75주기 추모다례제' 29일 개최
29	06.30	뉴스랩	"심우장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
30	06.30	불교저널	"심우장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
31	07.01	JBC뉴스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5주기 추모 다례제, 서울시 성북동 심우장에서 열려
32	09.17	아시아경제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즐겨볼까?
33	09.17	신아일보	성북구 '2019 성북동 문화제 야행' 개최
34	09.17	시민일보	성북구, 20~22일 야간 문화체험 프로 운영
35	09.17	문화뉴스	[MHN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즐겨볼까
36	09.17	업코리아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즐겨볼까
37	09.18	문화일보	한국가구박물관·심우장... 성북동서 가을밤 정취를~
38	09.19	글로벌이코노믹	서울 성북구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열린다
39	09.20	시선뉴스	축제를 한 눈에! 이번 주(09.20.~09.26.) 축제 일정 '서울/경기 및 인천'



사회 > 일반

구 곳곳이 역사...'성북동 문화재 야행' 성료

(서울=뉴스1) 이현일 기자 | 2019-09-23 11:44 송고



2019성북동 문화재 야행 문화재 모습(성북구제공)©뉴스1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2일 관내 유적지 및 박물관을 둘러보는 '성북동 문화재 야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가구박물관, 만해 한용운이 지은 심우장,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분원, 한옥의 고풍스런 아름다움을 품은 미술사학자 혜국 최순우 선생의 옛집 등을 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가을밤 정취와 함께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 또 이 기간 거리에서 열린 남사당놀이, 북청사자놀이, 진주검무, 처용무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인의 공연과 연·부채 무형문화재의 기술시연도 관람했다.

《news1》, 2019.09.23.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0	09.20	트레블투데이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즐겨볼까! 성북동 문화재야행
41	09.21	매일신문	주말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9월 21일~22일)
42	09.23	헤럴드경제	성북구,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성료
43	09.23	내일신문	한옥촌 밤을 달군 대금, 가야금
44	09.23	업코리아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야행 성료
45	09.23	news1	구 곳곳이 역사...'성북동 문화재 야행' 성료
46	09.23	신아일보	성북구 '2019 성북동 문화재 야행' 개최

고대와 주민 하나 되는 성북 '끌어안암'

입력 : 2019-09-26 18:14 | 수정 : 2019-09-27 03:14

서울 성북구는 28일 오후 2~6시 고려대와 함께 '2019 끌어안암'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끌어안암은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내 주민·상인·학생이 어울리고 소통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창업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암동5가 안암역~안암오거리 사이 일명 '참살이길' 일대에서 펼쳐진다. 창업·취업·예술·놀이·소소 5개 마당으로 나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창업마당에선 청년 창업팀이 창업아이템을 소개하고, 취업마당에선 채용 정보가 공유된다.

예술마당에선 안암동 주민공모사업팀의 문화예술 전시와 주민·청년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과 플리마켓(벼룩시장)이, 놀이마당에선 전통놀이체험이 열린다. 소소마당에선 지역 주민 바자회와 나눔행사가 개최된다. 한 주민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주인의식 같은 걸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끌어안암은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활력 넘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조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9.09.2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7	09.23	컨슈머타임즈	광화문광장서 '서울 문화원엑스포' 열린다
48	09.24	신아일보	성북구, 28일 '2019 끌어안암' 개최
49	09.25	문화일보	창업아이템 뽐내고 벼룩시장... 안암동서 청년·주민 축제
50	09.25	연합뉴스	2019 서울문화원 엑스포 열려
51	09.25	뉴스1	2019 서울 문화원 엑스포
52	09.26	뉴스렙	"타본 체험이 가장 재밌고 신났어요"
53	09.26	서울신문	고대와 주민 하나 되는 성북 '끌어안암'
54	09.30	신아일보	지역과 대학이 '청년' 위해 뜨겁게 끌어안았다
55	10.02	오가닉라이프신문	성북구·성북문화원, 5일 '조선시대 성북지역 공간·삶·문화' 학술회의
56	10.03	시민일보	성북구, '2019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57	10.06	파이낸셜뉴스	캠퍼스 담장 뛰어넘은 '소통'
58	10.19	뉴스프리존	우리 역사 속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에 대한 기억,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2"
59	10.25	민중의소리	격동의 시대를 이끌었던 여성 독립운동가 10인 '여성독립운동가 열전2' 충무아트센터 무대에
60	10.27	국민일보	시대를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10인을 무대에서 조명
61	10.29	한겨레	'시대 이끈 여성 10인10색'...여성독립운동가 열전 2탄
62	11.06	아시아경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성북구가 있었네!
63	11.06	아시아뉴스통신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성북구가 있었네!
64	11.06	국민일보	돈암장, 김신조 루트...성북을 펼치면 한국현대사가 보인다
65	11.07	시민일보	성북구, 21일까지 주민 아카데미 강연회 개최
66	11.07	헤럴드경제	'성북을 펼치면 한국현대사가 보인다'...주민 아카데미 강연
67	11.07	신아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주민아카데미 강연회 개최

시민일보

HOME > 지역소식 > 인사들

성북구, '2019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홍덕표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3 17:06:18

**2019
성북학 학술회의**

성북 지역의 사람과 불교 문화재
발표 임석규 | 불교문화재연구소
토론 주수원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조선 후기 성북 지역의
문화공간과 한시**
발표 이준현 |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토론 박미선 | 성북문화원

**옛지도로 보는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
발표 문성명 | 성신여대 기체학과
토론 이계형 |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성북동 성곽원과 독립운동
발표 이항우 | 경기대 사학과
토론 정복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성북 지역 농요 조성곡 그 의미
발표 이근호 |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토론 권기종 |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 일시
2019. 10. 05. (토)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성북문화원

**조선시대 성북지역의
공간·삶·문화**

주최: 성북문화원 070-9670-1631

'2019 성북학 학술회의' 포스터.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5일 성북문화원 소강당에서 옛 자료를 통해 '2019 성북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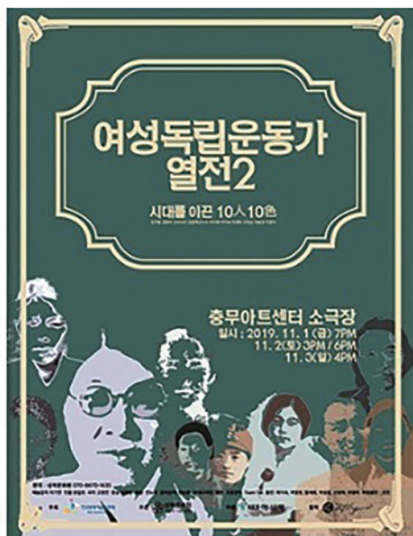
'조선시대 성북지역의 공간·삶·문화'를 주제로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회의는 성북 지역과 관련 있는 조선시대 유적·유물·기록의 실재를 규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한편 그 계승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일보》, 2019.10.03. 기사 발췌

시대를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10인을 무대에서 조명

내달 1~3일 중무아트센터 소극장

입력 2019-10-27 20:0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뜻깊은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무용극 '여성독립운동가 열전2-시대를 이끈 여성 10인 10현(포스터)'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중무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일제강점기에 불꽃같은 삶을 살았지만,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열전2는 강주름 김마리아 김알렉산드라 권애라 박자혜 박자정 부춘화 오광심 정철성 허정숙 등 여성 운동가 10명의 이야기를 담는다. 당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중국 러시아 연해주까지 뻗어 나갔던 여성 독립운동의 활약상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고종에 예술적 상상력을 입힌 복합 무용극인데, 의상디자인과 무용 영상 음악 등 장르를 융합해 역사 속 인물을 생생하게 불러낸다.

올해 초 서울 대학로 중앙예술극장에서 선보였던 열전1은 정정화 이은숙 조화벽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열전2는 생활문화 운동을 벌여온 이기연 질경이 우리웃 대표가 예술감독을, 열전1과 '백의무-동학농민운동' 등을 만든 양길호 안무가가 연출을 맡았다.

열전2 관계자는 "현재와 긴밀히 연관된 여성 운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여성의 삶과 역할까지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문화정책네트워크 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KEB하나은행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성북문화원을 통해 사전 신청 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국민일보》, 2019.10.27. 기사 발췌

H 헤럴드경제

‘성북을 펼치면 한국현대사가 보인다’...주민 아카데미 강연

2019-11-07 10:30

2019
성북구 주민
아카데미



성북을 펼치면 한국현대사가 보인다

오전 대상·관심 있는 분 누구나
강연 장소: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날 짜	시 간	주 제	강 연 자
11. 05(화)	19:00 ~ 20:30	돈암장과 해방 3년기 한국 정치사	서중석 (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11. 07(목)	19:00 ~ 20:30	4.19혁명과 6.3항쟁, 그리고 성북	오제연 (성북문화원 소강당 운영)
11. 12(화)	19:00 ~ 20:30	성북구에서 한국 최대 독립항 쏜소알	서중석 (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11. 14(목)	19:00 ~ 20:30	김교신의 삶과 사상	알한재 (한양대학교 교육연구소)
11. 19(화)	19:00 ~ 20:30	1.21사태와 한반도 분단체제	홍석훈 (성북문화원 소강당 운영)
11. 21(목)	19:00 ~ 20:30	고바우영감과 한국 시사만화가 걸려온 길	백정숙 (한양대학교)
11. 10(수)	10:00 ~ 15:00	성북구 현대사 탐방	박광일 (작가·역사)

주최: 성북문화원
주관: 성북문화원
문의: 성북문화원 02-94079-1631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돈암장, 미마리고개, 성북동 김신조 루트, 석관동 3층 중앙정보부 강당 등 서울 성북구에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절곡과 아픔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가 많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남다른 인연을 간직한 지역 장소를 활용해 주민 아카데미 강연회 ‘성북을 펼치면 한국현대사가 보인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연은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성북문화원 소강당에서 이어진다.

역사문화연구소 서중석 이사장이 ‘돈암장과 해방 3년기 한국 정치사’, ‘성북구에 최대독립항 쏜소알’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성북구를 거쳐 간 중요한 인물인 이승만과 조소앙의 활동을 조명한다. 성신여대 사학과 홍석훈 교수는 1968년 1.21사태를 전후한 한반도 분단체제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성관대 사학과 오제연 교수가 1960년대 학생운동의 흐름을 4.19혁명과 6.3항쟁 그리고 성북이라는 공간으로 다룬다. 또한 성북구 정릉에서 활동했던 근현대 기독교 사상가 김교신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양현해 교수가 강연하고, 백정숙 만화평론가는 얼마 전 타계한 ‘고바우 영감’의 작가 고 김성환 화백을 중심으로 한국 시사만화의 역사를 소개한다.

현대사 현장 탐방도 예정돼 있다. 돈암장, 미마리고개, 구 중앙정보부 강당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 2019.11.07. 기사 발췌

2019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 그룹 회장
-----	--------------

부원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김영일	(주)태명실업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

이사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김신한	대성산업가스 사장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학예실장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당연직) 박성도	성북구청 복지문화국장

감사

정호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최종명	최종명세무사사무소 대표

운영위원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장
계영선	영 라인의원 원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관리과장
이흥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한민석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고문

김영준	성신웹진 회장
김해용	삼미산업(주) 회장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박창호	템피스트투자자문(주)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서세옥	전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이병무	(주)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운재	(주)피죤 회장
이의순	(주)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CEO회장
정승소	(주)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최만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 회장

2019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계영선, 고윤근, 권아름, 김경서, 김금숙, 김병희, 김용준, 김용진, 김유영, 김은화, 김의성, 김장현, 김주미,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병호, 박상찬,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배재현, 변성진, 서준석,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강한, 이건자, 이상훈, 이석권, 이승호,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주현, 이준성, 이중민, 이현주, 임석규, 전원호, 정병기, 정상욱, 정영, 정지연,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홍선희, 황장훈, 황재호, JIN LIAN HUA,

기관·단체

교육기업 함께늘봄, 남양유업(주), 대성산업가스(주), 엘에스엠트론(주), (주)광주요, (주)삼신엠앤티, (주)효성, (주)질경이우리웃, (주)대명실업, (주)더비즈링크, (주)피사일삼,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학연문화사, 흥천사, 회회낙락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영락인원(서울 성북구 성북로6길 4)



고기 굽는 마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
(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9-4)



탭하우스F64
(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데자르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30 2층)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 의식 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시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20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88기 봄 / 89기 여름

성북문화원

수강생 모집

깊은 멋 · 나눔 · 즐거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강좌일정	88기 봄학기 03~05월(12주)	89기 여름학기 06~08월(12주)
강좌기간	2020.03.02 (월) ~ 2020.05.22 (금)	2020.06.01 (월) ~ 2020.08.21 (금)
접수기간	2020.02.03 (월) ~ 2020.02.28 (금)	2020.05.04 (월) ~ 2020.05.29 (금)
수업무료참관기간	2020.01.20 (월) ~ 2020.01.31 (금)	2020.04.20 (월) ~ 2020.04.24 (금)

※수업무료참관 관심있는 강좌의 참관을 통하여 강좌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필수)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문의전화 02-765-1611

홈페이지 www.isbcc.or.kr

결제방법 방문접수-현금 및 카드결제 / 인터넷접수-계좌이체 (인터넷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함)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0900 (예금주 : 성북문화원)

강좌별 개강·종강 일정

88기 봄학기 (3월 ~ 5월)

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3.02	03.03	03.04	03.05	03.06
종강일	05.18	05.19	05.20	05.21	05.22

89기 여름학기 (6월 ~ 8월)

여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6.01	06.02	06.03	06.04	06.05
종강일	08.17	08.18	08.19	08.20	08.21

88기 휴관일 4/15(수) 21대 국회의원 선거, 4/30(목) 부처님 오신 날, 5/1(금) 근로자의 날, 5/5(화) 어린이날

89기 휴관일 없음

문화강좌 소개

성인강좌 멋과 흥이 살아 있는 전문 강좌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12주)
가야금병창	월	14:00 ~ 15:30	10명	70,000원
사군자	월	10:00 ~ 12:00	20명	60,000원
사진작가	월	12:30 ~ 14:30	20명	70,000원
스포츠댄스	월	10:00 ~ 11:30	20명	60,000원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월/수	12:00 ~ 13:20	20명	120,000원
원어민영어회화 (중급 Level1)	월/수	10:30 ~ 11:50	20명	120,000원
쑈바댄스	월/수	12:00 ~ 12:50	20명	120,000원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화	10:00 ~ 12:00	20명	70,000원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화	14:30 ~ 15:50	20명	80,000원
선소리산타령	화	10:00 ~ 12:00	20명	60,000원
시낭송가 양성과정	화	13:00 ~ 14:20	20명	80,000원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화	13:00 ~ 15:00	20명	70,000원
팝송영어	화	15:50 ~ 17:20	35명	70,000원
해금	화	17:10 ~ 18:30	20명	70,000원
원어민영어회화 (중급 Level2)	화/목	16:00 ~ 17:20	20명	120,000원
원어민영어회화(고급)	화/목	13:40 ~ 15:00	20명	120,000원
대금	수	15:50 ~ 17:20	20명	80,000원
민화	수	13:10 ~ 15:10	20명	70,000원
역사와 문화유산	수	15:00 ~ 16:50	20명	60,000원
한글서예	수	10:00 ~ 12:00	20명	60,000원
수묵산수화A	목	09:20 ~ 11:20	20명	60,000원
수묵산수화B	목	11:30 ~ 13:30	20명	60,000원
한국무용(초중급)	목	13:30 ~ 15:00	20명	60,000원
한국무용(심화)	목	15:00 ~ 16:30	20명	60,000원
한문서예A	목	14:00 ~ 16:00	20명	60,000원
한문서예B	목	16:00 ~ 18:00	20명	60,000원
규방공예	금	10:00 ~ 12:00	20명	60,000원
경기민요	금	13:00 ~ 15:00	20명	60,000원
문예창작실기	금	10:00 ~ 12:00	20명	80,000원
수채화&데생	금	13:20 ~ 15:40	20명	80,000원
장구	금	11:00 ~ 13:00	20명	60,000원

환불·변경 규정

1. 환불·변경신청: **방문신청** (전화, 인터넷 접수 불가) ❖ 매달 25일 전까지 신청
2. 구비서류: 신분증, 영수증, 통장사본(통장정보로 대체가능)
(대리환불·변경 신청: 상기 지참물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환불 및 변경차액 지급방법: **무통장입금** (매월 말 일괄입금)
현금반환, 카드취소(카드사별 상이)
4. 강좌변경: 1회에 한하여 가능
5. 타인명의로 대리 수강한 자는 후후 수강신청 불가
6. **환불금액** 1) 폐강 시: 전액환불
2) 개강 전: 전액환불
개강 후: **당해 월을 제외한 남은 달만 환불**
[당해 기수 마지막 달(2, 5, 8, 11월) 환불 불가]
7. 환불 대신 **다음 기수로 연기 불가**

어린이강좌 언어·사고력·체력 향상의 길잡이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12주)
어린이 가야금병창 (초등생)	월	16:00 ~ 16:50	10명	70,000원
두뇌개발 어린이주산 (유치부~초등생)	월	16:00 ~ 16:50	20명	80,000원
창의사고 보드게임 (7세~초3)	월	17:00 ~ 17:50	20명	80,000원
영어회화(기초) (5~8세)	월/수	16:00 ~ 16:50	20명	90,000원
영어회화(초급) (5~8세)	월/수	15:00 ~ 15:50	20명	90,000원
영어회화(중급) (5~8세)	월/수	17:00 ~ 17:50	20명	90,000원
어린이 해금 (초4~)	화	16:10 ~ 17:00	20명	70,000원
유아발레 Level 1 (5~7세)	금	17:00 ~ 17:50	20명	70,000원
유아발레 Level 2 (5~7세)	금	16:00 ~ 16:50	20명	70,000원

야간강좌 자기계발과 인문학적 소양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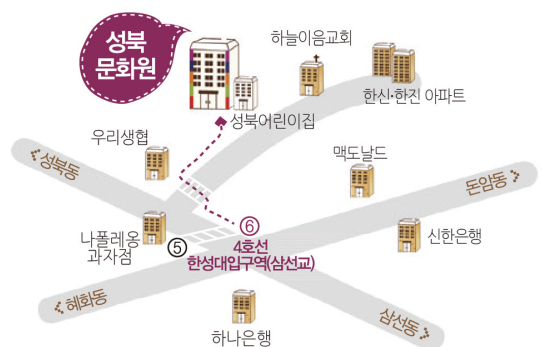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12주)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화/목	18:30 ~ 19:20	20명	90,000원
원어민중국어회화(중급)	화/목	19:30 ~ 20:40	20명	120,000원
웰빙실용풍수	목	19:00 ~ 20:30	20명	60,000원

수강시 유의사항

1.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은 실제 수강자 또는 인터넷 신청자명**으로만 가능
2. 적정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3. **교재·재료비·악기 대여비는 별도 개인 부담**
4. **총 12주 교육일정 중 법정 공휴일은 보장하지 않으며,**
기타 사유로 인한 휴강은 보장함

성북문화원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6번 출구 → 한신·한진 APT 방향 도보 3분거리
- 지선버스 1111, 2112번 삼선교(성북문화원) 하차
- 마을버스 01번 삼선교(성북문화원) 하차



輝日
新光

庚子元旦 薙現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02834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www.isbcc.or.kr



9 772383 938003

ISSN 2383-9384



07